

## 미국이여 깨어나라...〈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 한인들 함께 기도  
 5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올해도 남가주 한인들이 미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미 전역에서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을 맞이해 한인 교회는 오렌지카운티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제65회를 맞이한 '국가 기도의 날'의 주제는 "Wake Up America(미국이여 깨어나라)"이며 주제 성구는 이사야서 58장 1절의 앞부분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개역개정)란 부분만 주제 성구로 채택했다.

'국가 기도의 날'에 한인들도 참여함을 알리기 위해 열린 14일 기자회견에서 한인 교계 지도자들은 미국의 영적 위기를 언급하며 회개와 기도를 촉구했다. '국가 기도의 날' 본부는 이사야서 58장 1절 앞부분만을 주제 성구로 뽑았지만



지난 2015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던 제64회 '국가 기도의 날' 행사에서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한인들.

이날 한인들이 배부한 보도자료와 포스터에는 58장 1절 전문을 주제 성구로 소개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5월 5일 오후 7시 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행사는 예배와 기도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남가주 지역 선출직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위한 축복기도 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가 기도의 날'은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기한 후, 1952년 의회의 결의에 따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됐다. 무신론자들에게 소송을 당해 2010년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1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극적으로 부활했다.

한편 이 한인 기도회는 OC한인목사회·기독교평신도연합회·OC장로협의회·여성목사회·원로목사회, 순 무브먼트, 미주성시화운동본부, CME, 미스바기도운동, 파이어크루세이드, HYM, 지저스홀릭 무브먼트가 주최하고 JAMA, OC교협,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다. 김준형 기자

### 20세기 예언자 A.W. 토저 명언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리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보다도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저 흘러 보내는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못박힌 손이 가져다 주신 것이다. 이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강제가 아닌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대중적 복음주의의 십자가는 신약의 십자가가 아니다. 가슴 위에 놓인 빛나는 새 장신구이며 손은 아벨의 손이지만 목소리는 개인의 목소리인 육적인 기독교이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신약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출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 “오늘 하루 나도 장애체험을”

살롬장애인선교회 '장애체험' 열고...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어야

4월 20일 본국의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장애체험' 행사는 12일 살롬장애인선교회 선교관 주차장에서 3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며 함께 치러졌다.

이 선교회 대표인 박 목사는 우선 장애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의 개념, 실태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 후에

시각장애체험, 지체장애체험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를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선 '체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직접 깨닫게 한다는 취지다.

우선 시각장애체험은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이용하여 바로 걷기, 장애물 지나기 등 다양한 체험을 실시하였다.

지체장애체험의 경우는 클러치를 사용하거나 직접 휠체어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체험을



살롬장애인선교회가 본국의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2일 이 선교회 선교관에서 장애체험 행사를 열었다.

하도록 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된 동기에 대해 박 목사는 "교육과 장애체험 행사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싶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

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열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이 선교회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구입한 램프밴(2000 Dodge, 약 12만 마일 운행) 기증식도 가졌다.

이 램프밴은 그 필요성이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지마비장애인 최유성 집사 가정에게 이달 초 기증됐다.

최 집사는 16세이던 1978년에서 서울 모 여고 기계체조 선수로서 2단 평행봉에서 연습하던 중 떨어져 경추에 심한 손상을 입고 지난 38년간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온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귀한 믿음의 가장이기도 하다.

[자료제공: 살롬장애인선교회]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크스, 알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 임시총회 및 회장 입후보 공고

저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46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추후 임시총회를 열어 46대 회장을 선임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관에 따라 46대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입후보자를 공고하며, 총회 결의대로 임시 총회소집을 공고합니다. 많은 뜻있는 목사님들의 회장지원과 총회참석을 소망합니다.

■ 회장입후보등록: 2016년 4월 29일 오후 5시 마감  
 ■ 접수처: 남가주교협 사무실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A., CA 90006  
 T.323-735-3000

■ 임시총회 일시: 2016년 5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임시총회 장소: 나성소망교회  
 4561 W. Pico Blvd., LA., CA 90019  
 T. (323) 937-0961 / (213) 550-7377

수석부 회장: 김재울

공천위원장: 한기형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735-3000 Fax: (323)735-3111 www.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org





UCS대학교가 멕시코에 현지인 교회를 건축했다.

### “UCS대학교 멕시코에 교회 건축”

현지인 하니벨리교회 건축 시작...200석 규모의 예배당과 선교사 숙소 등 갖춰

UCS대학교(총장 아브라함 최)가 멕시코 바하칼리포니아 샌퀸틴에 현지인 교회인 하니벨리교회(Honey Valley Church) 건축을 시작했다. UCS대학교는 200석 규모의 예배당과 축구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 선교사들의 숙소까지 건축해 이 교회에 모두 기증할 계획이다.

하니벨리교회를 담임하는 프레인티노 타피아 목사는 UCS대학교가 속한 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안수받은 제1호 멕시코 목사다. 아브라함 최 총장은 “우리 학교는 세계 선교를 실천하는 대학이다. 부흥의 초석이 될 교회가 세워져야 멕시코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UCS대학교는 하니벨리교회를 건축하는 것 외에도 이미 멕시코 내 3곳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전액 장학금을 주며 신학 교육을 하고 있다. 최 총장은 “130년 전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신 선교사들이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없이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배 박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전도서 해석과 설교”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전도서 해석”

개혁장로회대 총동문회 세미나...강사 이창배 박사 초청

개혁장로회대학교·신학대학원 총동문회가 4월 18일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전도서 해석과 설교”란 신학 세미나를 남가주비전교회에서 개최했다. 이 학교 교수인 이창배 박사는 강의에서 전도서의 구조를 분석한 후, 전도서의 메시지에 대한 학자들의 신학적 견해들을 소개했다. 이 박사는 “헛되고 헛되다는 내용으로 인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하나

님을 경외하라’는 교훈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도서의 일부만을 설교할 경우 큰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드시 전체적인 교훈의 기초 위에 세부적인 내용을 해석하고 설교에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미나는 총동문회장 원사라 교수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오세훈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이후에는 동문들 간의 친교 시간이 이어졌다. 김준형 기자

### “남가주교협 회장 선출 위한 임시총회”

공천위원회 열고 4월 29일까지 후보 등록 받아...총회는 5월 9일 예정



남가주교협 임시총회와 47차 총회를 위한 46대 공천위원회가 열렸다.

남가주주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가 임시총회를 드디어 개최한다.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 30분 나성소망교회(4561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에서 열리게 되는 이 총회는 제46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남가주교협은 4월 29일 오후 5시까지 회장 입후보자를 등록 받는다. 이에 이 협의회는 12일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울 목사)에서 임시총

회와 47차 총회를 위한 46대 공천위원회를 가졌다. 임원진과 이사진, 회원대표, 그리고 지역 교협 각각의 4개 부서에서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빅터빌교협의 강부웅 목사의 개회기도, 한기형 감독(증경회장)의 말씀과 축도로 경건회를 마친 후, 백종윤 목사의 공천위원회 운영 규정 낭독에 이어 공천위원회 위원장과 서기, 회계 등을 선출했다. 공천위원장은 한기형 감독(증

경회장), 서기에는 백종윤 목사, 회계에는 최형호 장로가 각각 선임되었다. 한편 남가주교협은 “지난 46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추후 임시총회를 열어 46대 회장을 선임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정관에 따라 46대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입후보자를 공고하며 총회 결의대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가주교협은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제46차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이 회장에 공천되지 못하면서 회장 공석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이에 회원들은 제45대 회장인 최혁 목사의 임기를 연장시키고 전년 도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정관 14조 4항에 대해 규칙 임시 정지를 가결한 후 임시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12월 2일 최 회장이 돌연 사임하면서 제46대 남가주교협은 김재울 수석부회장의 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12월 11일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준형 기자

### 아름다운 동행...행복한 목회자 세미나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하이데저트교회에서 이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55세 이하의 목회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등록비는 100달러이지만 행사를 마친 후 전액 다시 돌려 준다. 이 행사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하남교회가 주최하고 후원한다. 강사는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하이데저트교회 탐 머서 목사가 나선다. 그는 오이코스스를 통해 이 교회를 120명에서 11,000명으로 성장시켰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동행 목회자 세미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심과 회복,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자 시작됐다. ▲문의 : 한마음제자교회 광부한 담임목사 ▲전화 : 213-321-4433

### 비영리단체 회계 담당자 위한 킥북 강좌

교회 및 비영리단체의 회계 담당자를 위한 킥북(Quick Books) 강좌가 선교와목회를위한정보센터 주관으로 은혜한인교회 내 그레이스 도서관GL2 강의실에서 4주간 열린다. 이 강좌는 한인교회와 비영리단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회계 정보를 잘 관리하고자 하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관심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강사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이자 교회 행정 및 IT 교수 제임스 구 교수다. 강좌는 5월 6일, 13일, 20일, 27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며 참석자들은 랩탑 컴퓨터를 준비해 와야 한다. 수강과 교재 비용은 200달러다. 문의는 전화 714-393-4595이나 이메일 icmm@church-homepage.org로 하면 된다.

### OC목성연 주최 말씀 세미나

오렌지카운티 목회자성경연구원(이하 OC목성연) 주최 말씀 세미나가 5월 9일(월)과 1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에서 열린다. 레위기를 주제로 이성철 목사(미주목성연 이사장,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가 강의한다. ▲문의: 714-519-9327

**SAS 인가컨설팅** 비영리단체, 선교회, 연구소, 종교특례 대학 및 일반대학 설립인가 미 전역 종합서비스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사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미주장신 기독교 인문학 포럼 개최”

성경·생태·생명신학 주제로... 이상명 총장 발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제2회 기독교 인문학 목요포럼이 “성경·생태·생명신학”이란 주제로 지난 7일 열렸다.

발제자 이상명 총장은 ‘아픈 지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익숙한 몇 가지 단어들-지구온난화, 산성비, 사막화, 오존층 파괴-로 소개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이 총장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5억 마리의 척추동물들이 실험실 재료로 사용된 후 안락사 당한다. 매년 50만 마리의 투구게가 제약회사에 의해 혈액을 빼앗기고 버려진다. 기후변화로 인해 2004년 1,600마리였던 북극곰은 2010년 900마리로 감소했다. 기후 변화 외에도 코끼리의 경우는 상아,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밀렵돼 개체 수가 급감했다. 코끼리는 5분마다 한 마리씩 사냥되며 인도 호랑이는 1947년 4만 마리에서 2014년 2,226마리로 급감했다. 미국에서는 1년에 돼지가 1억1백만 마리, 소는 3천7백만 마리, 닭과 칠면조는 80억 마리가 식용으로 도살된다. 동물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이 동물을 사육하는 데 필요한 사료, 이 동물들이 내뿜는 배설물과 가스도 환경오염의 한 요인이다. 공해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산림과 열대 우림이 파괴되고 있다. 인간이 일으킨 환경오염의 피해로부터 인간도 결코 자유롭지 않아, 각종 선천적·후천적 장애와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인간의 생태계 파괴는 결국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생태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총장은 대표적으로 기계론적 인간 중심주의,

지구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누어 소개했다.

르네 데카르트, 존 로크, 토마스 홉스 등으로부터 나온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문명 개발을 위해 자연을 이용 혹은 착취해도 된다고 보았다. 이 총장은 “심지어 프랜시스 베이컨은 자연을 여성 노예 혹은 창녀에 견주며 남성들이 그들을 돈으로 마음대로 살 수 있듯이 자연도 그러하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그다음은 가이아 이론과 같은 지구 중심주의다. 지구를 생명의 잉태와 성장의 터전인 어머니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지구가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하나의 생명체이자 유기체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관점은 자연이 인간과 대등하다는 시각을 넘어 아예 자연을 신격화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이 총장은 소개했다. 또 이 개념은 전통적인 신학이 하나님을 남성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여성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총장은 “생태계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기에 그 자체로서 가치가 인정되지만, 인간을 단지 많은 종(種)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점이나, 성경이 자연보다 인간을 우월하게 본다고 하여 성경까지도 반대하는 점, 모든 가치를 평준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은 하나님 중심주의다. 이는 성경의 창세기 1장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의 문화역사학자인 화이트 등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구약성경의 창조 명령이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상명 총장

그러나 이 총장은 “기독교가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자연을 인간의 정복과 지배를 받는 대상으로 가르쳐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보호자, 청지기로서 부르는 거룩한 초월이다. 오히려 인간의 탐욕이나 힘의 추구, 자유시장 경제 제도와 과학 기술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항변했다.

이 총장은 “마지막 날에 이뤄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사야서 11장은 온갖 동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서 “이처럼 모든 피조물과 우주적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질서의 보존과 회복의 사역을 맡기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 총장은 끝으로 생태신학자 제이 맥다니엘이 제시했던 적색 은총, 녹색 은총의 개념으로 발제를 마쳤다. 이 총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희생의 피에 근거한 적색 은총만큼이나 자연을 주신 녹색 은총에 감사하며 양자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 “한국교회 현실을 말하다”

목회사회학회 창립기념 세미나 개최  
교회 시대적 소명은 시민사회 공동체 형성

국미션네트워크(회장 한기양 목사)와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 조성돈 교수)가 19일 저녁 서울 도림감리교회(담임 장진원 목사)에서 ‘목회사회학회’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학회는 목회사회학 연구를 통해 그 학문적 저변을 넓힐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교회 현실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목회사회학)와 정재영 교수(종교사회학)가 각각 발표했다.

먼저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라는 주제 아래 조성돈 교수가 발표했다.

조성돈 교수는 “최근 한국교회는 사회와의 소통에 문제점을 드러내며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갇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즈음하여 나타난 사회적 질타와 지적들은 그간 한국교회가 개교회 성장에 몰입한 결과를 보여준 것 같다. 즉 이 사회 안에서 한국교회라는 공공회로서의 모습이 잃어버리고 예언자적 역할마저도 포기한 자화상을 사회를 통하여 보게 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한국교회가 더 이상 개교회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는 기본적인 존립마저도 위험하다는 위기감을 가진 것”이라며 교회에 주어진 과제로 △주체화된 시민을 형성할 것

△참여의 통로가 될 것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가치를 창출·유지할 것 등을 꼽았다.

정재영 교수는 “도덕이 살아 있는 사회에서는 소수에 대한 배려와 약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도덕적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종교”라며 “사회가 변하고 삶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 흔들려서 가치 판단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욱 종교에 의지하게 된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종교가 기준점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교회 소그룹을 기독교 시민 조직으로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시민 사회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데 교회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종교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교회는 시민 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종교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는 도덕의 차원을 다시 공공 영역으로 들여 오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외면받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시민 사회의 힘에 기여할 수 있다면, 공공 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LA한인타운의 크리스천 사립 새언약 아카데미(NEW COVENANT ACADEMY, 교장 제이슨 송)가 올해 17명의 졸업생을 배출, 졸업생 전원이 예일대, 코넬대, 카네기 멜론대 등 우수 사립대학과 UCLA, UC버클리, USC, UC데이비스 등 UC계열 대학에 진학했다. 1999년 설립된 이 크리스천 학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16명의 풀타임 교사와 뛰어난 행정업무 능력의 7명의 교직원들이 180여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 학교는 K-12칼리지 프렙 IB 운영학교다. ▲문의: 213-487-5437 홈페이지: www.e-nca.org



발표자 조성돈(왼쪽)·정재영(오른쪽) 교수.

이런 때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10년 하세요? 10년의 경험은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대) 교통사고·각종보험·여행자보험

65th Annual National Day of Prayer

**WAKE UP AMERICA**

NATIONAL DAY OF PRAYER

MAY 5, 2016

**제 65회**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2016년 5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미국이여 깨어나라!**

금년은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뽑는 중요한 해 이기에 어느 때보다 비상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미국은 교만과 배도와 무고한 피 흘림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제도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미국이 영적, 도덕적, 경제적, 국제적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최: OC 한인목사회, OC 평신도연합회, OC 장로협의회, OC 여성목사회, OC 원로목사회, 남가주 각지역 교협/목사회, KCCC (SOON Movement), 미주성서화운동본부, CMF, 미스바기운동, Fire Crusade, HYM, Jesuholic Movement

Jama,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주관: JAMA, OC 기독교교회협의회, 미주기독교총연합회

www.NationalDayofPrayer.org

문의처: JAMA (323)933-4055, OC교협 (714)615-9191, 은혜한인교회 (714)336-4378

www.jamapraye.com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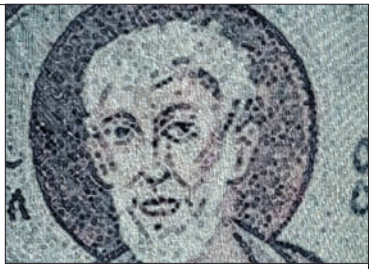




제37회 미주성결교회 총회 중 목사 안수식이 거행되고 있다.

#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 7. 해방노예

어찌 있으랴. 조부로부터 내려 오던 내 노예신분이 해방된 그 날을.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 나는 바울의 선한 배려를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이 로마감옥에서 자신을 돕던 나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건넨 편지가 나를 그리 만든 것이니.(저자주 - 바울이 오네시모 인편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신약성경 빌레몬서이다. 빌레몬서 1장16~18.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돌자라.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에 대해 법안이 올라갔다 부결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오히려 얼마나 노예의 숫자가 많은지를 깨닫게 해서 세력화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노예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 예수의 가르침은 누구보다 노예들에게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지 않은가.

## 8. IN DUBIO PRO REO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예수를 못 박아달라는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빌라도는 그렇게 답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저들이 대는 증거는 일관되지 않았으니. 범죄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피고인 예수를 풀어주라는 로마법의 대명령을 따른 것이니 예수를 죽인 것은 로마법정이 아니다. 빌라도가 필요이상으로 비난받고 있다.

빌레몬은 그의 귀한 물건을 훔친 이가 나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심복들이 나를 기소한 법정에서 빌레몬은 증인을 내세워 나를 소아시아의 악명 높은 감옥에 갇히게 할 수 있었으니 그러지 않았다.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천부장이 말했고 나는 풀려나 로마로 갔다.

바울의 복음전도가 아시아에서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이들의 사업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를 갈던 그들은 예수를 죽였던 똑같은 방식으로 바울을 죽이려 하였다. 바울은 로마시민이었다. 인 두비오 프로 레오.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에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항변했다.

가이사에게 상소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이 로마에 왔으니, 내 운명을 연결한 이 법률 용어를 어찌 잊을 수 있으랴.

## OC교협 영적각성 대성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승기 목사)가 오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브레이크에 있는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 시무)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주제로 영적 각성 대성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전주바울교회의 원팔연 목사로, 그는 이 교회를 호남 지역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한국 기독교총연합회가 2015년의 부흥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3일간의 집회는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일한 시간에 어린이를 위한 집회도 별도로 있고 차일드 케어가 제공된다. 또 목회자들을 위해 29일(금) 오전 10시부터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목회"라는 목회자 세미나가 열린다.

민승기 OC교협회장은 "영적 능력이 있는 원팔연 목사가 인도하는 이번 성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영성 훈련에 집중할 것”

## 미주성결교회 총회... 황하균 총회장 선출

제37회 미주성결교회 총회가 11일부터 15일까지 잔스크리안교회(담임 이승훈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황하균 목사가 총회장에 단독 입후보해 선출됐으며 목사 부총회장에 이상복 목사(연합선교교회), 장로 부총회장에 황규복 장로, 서기에 김동욱 목사(큰나무교회), 부서기에 황영송 목사(뉴욕주정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또 교단 운영의 주축적 역할을 담당할 총무는 6명 후보 중 이흥근 목사(아이오와 은혜교회)가 선출됐다.

황하균 신임 총회장은 “미주성결교회의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영성훈련 등에 힘쓰면서 다음 세대가 성결교단을 사랑하고, 함

께 일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3일에는 목사 안수식이 거행됐다. 목사 안수 후 보자는 김정수, 백승원, 방주일, 선홍, 이요셉, 정유창, 조내연, 황성은 등 8명이며, 안수위원은 안수훈 목사(나성교회 담임)를 비롯한 30명이 참여했다.

목사 안수식에서 권면의 말을 전한 전 총회장 이희철 목사(가스윌교회 담임)는 “목사는 성결해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이성



신임 총회장 황하균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 바란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 자기 관리를 잘 하는 목회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미주성결교회 산하 교회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차세대 영어권 한인 성도의 안정적인 교회 정착, 한국 성결교회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성결교회들의 언어, 문화적 다양성을 중재하고 통합하는 가교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윤수영 기자

# “정인수 목사, 믿음의 유산 남기고 소천”



故정인수 목사

에틀랜타를 비롯해 미주 한인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로 한인이민교회 모델 교회상을 제시한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가 지난 주일(17일) 새벽 4시 잔스크리 에모리대학병원에서 소천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61세 생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정영화 사모와 1남

(정선교)이 있다.

정 목사가 소천하자 곳곳에서 애도가 이어졌다. 한병철 목사(에틀랜타중앙교회 담임)는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고 삶을 통해 교인들과 후배들의 복음주의 연합에 모범을 보여주셨다. 목사님의 리더십과 열정과 사랑이 오래 기억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인은 1955년 4월17일 태어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와 미시간 주립대학 대학원(MA)을 졸업했다. 이후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43:18~19절 말씀을 소명의 말씀으로 받고 박사 과정을 진행하려던 길을 접고 프린

스턴 신학교로 새로운 신학의 길을 떠났다. 또 그는 예일대학 신학대학원(STM)등을 거쳐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북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개척 교회를 시작, 불과 10여 명에 불과하던 교인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다. 그는 3년 반 후 그곳을 떠나 LA에서 학업과 목회를 병행하다 1995년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의 6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160개의 평신도 사역팀이 가동되는 역동적인 평신도 사역, 생명력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132개의 가정 공동체사역, 강력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 새로운 차세대목회의 패러다임의 개발로 건강하고 다이나믹한 성장을 해왔다. 또 교회를 혁신하는 한인이민교회 모델교회상을 제시하며 실험적이고도 진취적인 목회 리더십을 구현하는 혁신적인 리더로 미주 교계에서 주목 받았다.

저서로는 ‘교회를 혁신하는 리더십’ (두란노) 등이 있다.

윤수영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Welcome to a better world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교회 및 자선, 비영리 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나부터 달라져야

에베소서 4:17-3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인류의 조상 아담이 창조되어지면서부터 옛세 동안 하나님이 하늘과 또 땅과 바다 속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임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놀라운 특권은 깨닫고 보면 우주 전체에 있는 만물과 또 지상과 수중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한 선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의 한 부분을 우리들 속에 파생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이 파생되어져서 피조물이 된 인간들이 그 영으로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우시기 때문에 그 영들을 하늘나라로 되돌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양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1. 이전에는 영이라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고 그저 속물근성만으로 살아왔기도 합니다. 속물근성이라는 것은 물질에 예속되어 있다는 뿌리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은 러시아를 통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며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세계를 공산화하겠다고 시작할 때 유물사관을 내세웠습니다. 유물사관(唯(오로지) 유(物)물(질)물(물)) 오로지 물질이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해서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뿌리를 세상에다 더 뻗으려고 물질 기대와 허욕에 시간과 정욕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 그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 보자고 하는 것은 천국소망을 가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좋아하는 하늘 시민권자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유익한 이득이 되게 내버려 두실리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천둥 번개 소리가 나더라도 너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소알 평지로 갈 때에 앞만 보고 가라고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에게 당부했었고, 그 당부를 받고 이제 소알 평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뒤에서 번개 불이 번쩍이고 천둥소리와 천지 개벽하는 소리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보다 세상에 두고 가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간절해서 명령을 거역하고 뒤를 바라보다가 그 즉시 선체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적인 기대심리를 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망한 것을 위하여 시간과 정욕을 아낌없이 집중하는 인생은 18절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총명은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각입니다.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져서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더 무익하고 비천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무지(無知)함과 저희 마음이 화인(火) 맞은 심령이라 김바닥 같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지적(智)적으로나 또 결과적으로 윤리적(道)적으로 내가 해서 안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혀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감동도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이 김바닥에다가 금덩어리를 던져 주어도 김바닥은 그것이 새똥인지 금덩어리인지 전혀 분별도 못하고 가지도 모르고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는 것과 같다 것입니다. 굳어진 심령에 아무리 생명의 보배로운 진리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귀한 줄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임(放恣)을 방(방)임(임)이라는 것은 방탕에다 자기를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뉘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2.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자를 하나님께서 옥수동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오신 성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교회는 정통보수신학과 영감적 체질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증거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받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심을 받았다고 하면 22절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타락한 인간의 자기 의지적 결단이나 노력으로 거듭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을 보내시어서 성령이 그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집중

적인 역사를 하실 때에 자기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계획속에 성령이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피동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주의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확장을 위해 구제하고 전도하고 교회봉사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교회적 사명에 앞장서게 되고 목자의 목회에도 적극적인 이해와 아낌없는 정성으로 순발 잘 맞추어서 협력 봉사 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재창조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25절부터의 말씀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저질스럽고, 속되고, 악한 말은 절대로 안 써야 합니다. 상스럽고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 유익을 위하여 필요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는 없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은혜 끼치는 말로 덕을 세우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언어습관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3. 우리 구원의 보증은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다 보시고 지키시고 듣고 계십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생활현장에서 확실히 인격 수양과 언어 예절과 행동목표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어 섬길려는 의도로 일치하는 처신이 되어진다면 성령이 그 사람을 근심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남 잘하는 것 훼방하고 모든 악한 의도까지 함께 다 버

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상호간에 인자하게 하라는 말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존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를 팔로 쓰실 사람을 마귀가 시기하고 미워, 질투하고 죽이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악을 쓰고 훼방해 을 수 밖에 없도록 소망적인 믿음이 될 때에 더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 대적과 행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애타계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속마음을 다 비우고 전도를 하려고 여러 해 집중적으로 엄청 투자하고 애를 썼는데도 전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진리의 교회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집중적인 조명과 계시로 역사하셔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 감사하게 생각되어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같이 성도 상호간에도 먼저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따는 일일 것입니다.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가지관을 일치시켜서 이 영적까지 제임주의를 지켜서 믿음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성과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이룰 드리기 위해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평가할 때 심령과 육신이 강건케 되고 우리의 섬김은 항상 남아 돌아가도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희소식

##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판매

#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Church  
Everyday

# 사역자 청빙 광고

Los Angeles Northridge 지역의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 1 목회부 사역자(남자 1명, 여자 1명)

- a. 자격요건
  - i. 정규 신학 대학원에서 신학석사 (M.Div)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분
  - ii.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내에서 목회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b. 지원서류
  - i. 이력서 w/가족사진
  - ii. 신앙고백 및 자기 소개서
  - iii. 목회자 추천인 2명 (이름, 소속단체, 전화번호)

### 2 기타내용

- a. 청빙 신청 마감은 2016년 5월15일까지입니다.
- b.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c. 서류를 보내주시길 이메일 주소:  
**(churcheveryday99@gmail.com)**  
\*이메일을 통해서만 신청 받습니다

에브리데이 교회

바누엘교회

## 바누엘교회 중고등부와 대학부 교역자를 모십니다

### ■ 사역부서

중고등부 1명, 대학부 1명 (각각 1분씩)

### ■ 자격

정규 신학교 졸업생이거나 졸업하신 분  
담당 부서에 경험이 있는 분  
학생들을 좋아하시는 분  
(가급적, 중고등부 사역자는 25-30세 정도의 미혼,  
대학부는 30세 전후의 기혼자)

### ■ 연락처

바누엘교회 담임목사 이동배  
T(818)823-5464, (213)353-4688

## 바누엘교회

190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57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 교육칼럼(4)

## 십대 자녀 바로 세우기(4)

과거나 현재,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십대 청소년들이 접하는 것은 (1)신체 및 심리적 변화 및 성장, (2)논리적 사고 발달, (3)윤리와 가치에 대한 질문, (4)성과 결혼에 관한 생각, 그리고 (5)장래에 대한 질문과 걱정이다. 그리고, 종전과 달리 요즘 청소년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가 여러가지 있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성(性)적 지식과 정보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루겠다.

1960년대 소수의 “베이비 부머”들이 성의 혁명 및 해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젊은이는 성에 관한 부모의 지침이나 규칙을 존중했고, 성적 타락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합피”나 마약을 사용하며 한때 문란한 성생활을 했던 젊은이도 점차 사회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그러나 이들의 성에 대한 개념, 태도, 정의는 종전과 분명히 달랐다. 개방적이며 허용하는 자세는 이들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 즉 오늘의 청소년에게 계속 대물림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 이들이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 오늘날 청소년은 성에 대한 규칙이나 경계가 없는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이 접하는 영화나 음악,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는 성적 관계 및 행위를 “사랑”으로 부추기며, 이성이든 동성이든(!) 사귀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성 관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즐길 수 있는 관계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 그래서 많은 십대가 성생활을 하고 있고,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더 나아가, 성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십대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을 체험하지 못한채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을 갖기도 한다.

특히 유대-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성의 정의나 경계는 고리타분한 전통으로 취급당하고 있으며, 예를들어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미식 축구선수 팀 티보우가 신앙 때문에 혼전 순결을 지킨다는 소식을 미디어는 비하하고 조롱한다.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즘 청소년은 결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데이트하는 과정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죄책감도 없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동거하고 성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아이러하게도 한국같은 유교사상적 사회에서도 결혼전 사귀는 남녀가 며칠간 한 방을 사용하며 여

행 다녀오는 것을 더 이상 타부(taboo)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K-pop 뮤직비디오에 이런 내용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틀림없다.

요즘같이 동성애나 양성, 또는 중성을 다루는 미디어의 개방적인 자세로 인해 요즘 청소년은 성에 대한 정상적 개념(normal)이 이전 세대와 확실히 다르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everything is relative) 개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을 우리 청소년들은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성의 개념, 경계, 그리고 원리를 청소년에게 잘 전달해야겠다.

매년 NCA 학교에선 7-8학년생을 위한 성교육을 제공하는데, 청소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개방적인지 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래서 가능하면 5-6학년생에게도 알맞은 성교육을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성교육은 학교나 교회보다 부모가 맡아야 할 몫임을 잊지 말자. 어떻게 자녀와 함께 이 도전을 접근해야 할 지 고민하는 부모가 있다면 Steve Arterburn의 책 Every Young Man's Battle과 Every Young Woman's Battle을 권하고 싶다. 이런 지침서를 통해 자녀의 성교육을 책임지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것이다.

## 하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 “하소”

지난 4월 9일 토요일에 엘에이 콜로세움에서 아주사 나우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있었다. 아침에는 날씨가 흐렸고 오후에는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내리는 비와 상관없이 약 10만여 명 이상의 다민족이 모여 하늘을 향해 하루종일 기도했다.

모인 사람들과 한인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회개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웃는 모습을 깨달았다. 역시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늘도 웃고 땅도 웃는 것 같다.

오는 7월 16일에는 미국의 워싱턴에서 100만 명이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신다.(대하7:14, 민6:24-260)

우리 마음에 행복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늘을 미소 짓게하는 “하소”의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얼굴은 영의 모양이다. 정신의 꼴이다. 영혼의 모습이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

정을 짓는 것, 비소(체면상 웃는 표정) 등이 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폭소, 미소(살포시 웃는 표정), 과안대소, 박장대소, 포복절도(숨이 끊어질 정도로 배를 움켜잡고 웃는 것) 등이 있다. 필자는 여기에 하나 더 하소(하늘을 미소 짓게 하는 웃음)를 추가하고 싶다. 특별히 하소를 강력히 추천한다.

“미소를 지으세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칭찬해 주고 기특하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미소를 자주 보내주면 어떨까. 아주사의 부흥운동이 기도운동 뿐 아니라 생활에서 예수 미소로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서로 미소를 지으라.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된다. 전혀 미소 짓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루에 다섯 번씩 미소 지어보자.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만나면 미소가 나온다. 죄를 용서함 받으면 미소가 흘러 나온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행복미소를 예수 믿은 우리가 먼저 언제 어디서나 실천하며 살아가길 축복한다.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하면 얼굴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속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생활습관을 체질화해야 한다. 마음에 담긴 사랑의 미소는 이웃들의 마음의 주름을 활짝 펴준다. 미소는 상대방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동의하는 것이다.

때로는 힘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고 하신 말씀을 믿고 하늘의 미소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면 어떨까?

웃음을 지칭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다. 부정적인 의미의 냉소, 비소, 실소, 썩소(사람을 깔보며 씩은 표

## 그 아이를 데려 오라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율법학자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 논쟁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상상은 간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게 약점이 되어 잔뜩 수세에 몰린 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등장하셨으니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기대가 컸겠는가?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막 9:16)며 물으셨고, 제자들의 편을 들기는커녕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으리요’(막 9:19)하고 질타하시며 율법학자들과의 논쟁 자체를 아예 해소해 버리시으로써 사태를 신속히 본래의 문제로 되돌려 놓으셨다.

정작 귀신에게 붙잡힌 소년의 고

십인물로 불러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소년의 고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벌어지고 있었던 ‘논쟁의 기만성’에 분노하시며 논쟁에서 이기고 집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생명을 살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도전에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세우신 것이다.

그렇다. 화두는 침묵하고 논쟁의 능력은 갈수록 세련되고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점점 더 빈곤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 현대 교회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다.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시다. “고통 받고 있는 소년은 어디다 두고 지금 너희는 무슨 주제로 그토록 침 튀기며 논쟁하고 있느냐? 귀신에게 붙잡힌 처절한 소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입으로만 공허하게 떠드는 것은 진정한 믿음도, 사랑도 아니다. 당장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조성노 목사  
푸른교회

통은 모두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었고 제자들과 율법학자들 간의 논쟁만이 이슈가 되어버린 현실을 개탄하시며 그 사태를 다시금 환원시키신 것이다. 이를테면 제자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율법학자들과의 논쟁을 통쾌하게 승리로 이끄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다면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한시라도 빨리 구해내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고통 받고 있는 소년을 그 사건의 중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GOLD



Special Price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NCCK 2016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NCCK

### “역사적 신앙의 통일성과 표준 회복해야”

한국장로교회 '종교개혁 세미나' 개최...신앙고백의 중요성과 필요성 고찰해

정통 신앙고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예수그리스도바르세쿤타기운동 학술원(원장 양희종 박사)은 1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호에서 '오늘날 왜 정통적인 신앙고백이 중요하며 필요한가(신앙고백의 역사적 고찰과 현대주의적 의미)'라는 주제로 제2회 종교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일웅 박사(총신대 전 총장)가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중심으로', 박형용 박사(합신대학원대학교 전 총장)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장로교회', 김산덕 박사(개신대학원대학교 전 교수)가 '개혁과 교회

의 신앙고백 계보와 현대적 의미'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특히 정일웅 박사는 "이 시대는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인지하고, 특히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권고한다"며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21세기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일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는 후예들로서 마땅한 일이며,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성숙한 신앙적 태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앙고백은 원래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한목소리로서

찬양의 의미를 가진 것이며, 동시에 다른 목소리(이단)를 구별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었다"며 "이에 걸맞게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목표로 신앙 교리의 체계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여 새 신자와 청소년과 기존 신자의 신앙을 깨우는, 신앙의 지적인 능력을 전수하는 일과 신앙관을 세우는 일과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열쇠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신앙의 표준과 통일성을 견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지금 심각한 교파 분열과 과도한 교회 성장의 치열한 경쟁 목회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한국 장로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연대·연합과 교파 통합을 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대용 기자

### “장애가 사회적 불이익 원인되면 안돼”

NCCK...2016년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 드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하늘나무감리교회에서 '2016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계윤(장애인소위원회 위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장애'(요 20:19~2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교회엔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서비스,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 서비스 등이 미비하다"며 "한국교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은 200여 곳에 불과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완성돼야 한다. 그런 공동

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 소위원회 주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100여 명이 함께 드린 예배에선 수화 통역사가 손짓으로 예배를 공동으로 인도했고, 휠체어 장애인 등을 배려한 시설이 설치되기도 했다.

NCCK는 "손상이 장애가 되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는 비성서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하늘의 뜻을 외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에 대해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NCCK는 1989년 제38회 총회에서 장애인주일을 갖기로 결의한 뒤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일을 정해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규진 기자

### “한국교회 현실을 말하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소통을 위한...목회사회학회 창립기념 강연회



조성돈 교수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19일 저녁 도림감리교회에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소통을 위한 새로운 실천신학 무브먼트(Movement)의 일환으로 '목회사회학회'가 창립된 가운데, 이를 알리는 기념세미나가 "한국교회, 현실을 말하다"란 주제로 열렸다.

"시민사회에서 정의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한 정재영 교수(실천신대 종교사회학)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현상들이 빈번하는 것이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의의 한 측면으로서 시민적 연대에 주목했다.

정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공론의 장인 시민 사회 영역에서 자기중심적인 개인들을 연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개인들을 연대하게 하는 힘은 규범"이라 지적하고, "개인들 안에 내재하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시민 도덕심으로 결속하도록 해야한다"면서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에서는 소수에 대한 배려와 약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목회사회학)는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육심에 터진 집단과 이기의 굴레를 초월(박



정재영 교수  
실천신대 종교사회학

영신: 35)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공동체에 의지된 시민사회의 형성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의 사회적 형체가 감당하여야 할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믿는다"면서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는 하나님 이 허락하여 주신 다양한 통로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된 우리 교인들을 바른 민주시민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망을 맞보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수민 기자

### “교인들과 국민들의 신뢰 얻을 것”

화해중재원 8주년 감사예배...3대원장 박재운 전 대법관 취임



박재운 장로  
3대 화해중재원장

한국기독교교회회 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이하 중재원) 개원 8주년 기념 제3대 원장 취임 감사예배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담임 피영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제2대 양인평 원장에 이어 박재운 장로(전 대법관)가 제3대 원장에 취임했다.

박재운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재원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을 성경이 가르치는 화해의 원리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무엇보다 앞서 중재원을 섬긴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한편 중재원은 교인들 사이의 사법적 분쟁 및 교회 또는 기독교단체 내외의 모든 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대안적 방법, 즉 상담과 조정 및 화해, 중재 등으로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 설립됐다. 지난 2011년에는 대법원에서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 받아, 교회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기구로서 인정받았다. 김진영 기자

## 201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종합원
- 기독교대학(AB), 목회학석사(M.Div), 신학박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지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사은 목사 712131407-46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c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u.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RCA 연합부흥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뉴욕신광교회에서 '양화진'이라는 주제로 개최,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희생을 조명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 선교뿌리 찾기 큰 호응”

## RCA연합부흥회... 한국 초기 선교사들 조명

RCA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나영에 목사)가 8일부터 10일까지 '양화진'이라는 주제로 신광교회에서 춘계 연합부흥회를 열고 한국인보다 더욱 한국을 사랑했던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삶을 집중 조명, 큰 호응을 얻었다.

RCA 한인교회들은 매년 봄철이 되면 유명 강사를 초청한 가운데 부흥성회를 열고 회원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다져오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뉴브런즈윅신학대학원 종교·선교사상사 부교수인 김진홍 교수를 초청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비롯한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헌신된 삶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홍 교수는 현재 뉴브런즈윅신학대학원 산하 언더우드글로벌기독교센터 디렉터도 함께 맡고 있다.

이번 부흥성회에서 김진홍 교수는 언더우드 선교사 뿐만 아니라 아펜젤러 선교사와 헤론 선교사, 홀버트 선교사 등 현재 양화진에 안장돼 있는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보여준 놀라운 사랑과 선교 열정을 전했다.

김진홍 교수는 먼저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삶과 관련, “안정된 삶의 보금자



강사 김진홍 교수

리를 떠나 100년 전에 모든 것이 낙후돼 있던 낯선 이방의 땅에 와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묻었던 그들의 삶에 대해 우리가 감사함을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 고마운 사랑, 위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되며 그들이 전해준 사랑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 교수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짓고 풀이 흐르는 땅으로 믿고 섬겼듯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은 그 척박했던 당시의 조건을 짓고 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받아 들였다”면서 “미국에서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뉴욕 플러싱이 우리의 가나안이며 여기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여기를 제2의 양화진으로 여기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원 기자



지난해 워싱턴DC에서 제1회 사모 수련회가 열렸던 모습.

# “개신교수도원수도회 사모 수련회”

## 잉글우드 자체 건물서 첫 진행...주강사 김금화 하버드대 교목

이민사회 내의 올바른 영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영적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개신교수도원수도회(원장 김창길 목사, 부원장 김에스터 목사)가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뉴저지 개신교수도원수도회 건물에서 제2회 '사모 수련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제1회 사모 수련회를 통해 이민 교회 사모들의 영적인 힘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했던 개신교수도원수도회는 올해도 사모 수련회를 통해 이민교회 사모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사모 수련회는 올해 초 새롭게 자리잡은 개신교수도원수도회 자체 건물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안락함이 돋보이는 개신교수도원수도회 새 보금자리는 3층 건물로 예배실과 사무실을 비롯해 말씀방과 기도방, 기숙사 및 샤워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개신교수도원수도회는 지난해 말 잉글우드 지역에 위치한 0.65에이커 부지의 106년 된 건물을 극적으로 구입, 구입 절차와 수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많은 간증들을 남기며 올해 초 입주했다. 이전된 개신교수도원수도회는 현재 영적인 쉼과 회복을 원하는 이들에게 안식처로 활용되며 훌륭한 기독교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사모수련회는 이전된 건물의 수용인원을 고려해 10명만 선착순으로 모집 중에 있다.

이번 사모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개신교수도원수도회 부원장 김에스터 사모는 “지난해 30여 명의 사모들이 참석해서

로의 사정을 나누고 위로 받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올해는 비록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하지만 서로 깊은 대화 속에서 치유 받고 사모의 자리가 얼마나 큰 영적 축복의 자리인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회 주강사는 김금화 하버드대 교목과 김에스터 목사가 참여해 '사모의 소망', '사모의 존재감', '이민교회 사모 역할론'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김갑권 목사, 김에스터 사모, 김에스터 목사의 아내이자 사문유치원 원장인 김옥순 사모가 강증하며, 이효연 목사가 사모의 정신건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주강사 김금화 교목은 김에스터 목사와 함께 서울대 문리대를 다니던 시절 평생 헌신을 다짐하며 선교의 꿈을 키웠던 영적인 동역자로, 하버드대학교 교목으로 오랜 기간 섬기고 있으며 골든게이트와 고든코벌에서 신학과 목회학을 전공했다. 김에스터 목사는 프린스톤과 예일, 드류에서 신학과 목회학을 전공했다.

특히 제자훈련과 선교를 전공으로 했던 김금화 교목은 하버드대학교 뿐만 아니라 MIT와 브라운대학 등 명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훈련과 제자훈련을 진행했고, 선교사도 다수 파송하면서 해외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인물로 사모들에게 목회자 사모의 역할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생생한 선교현장의 간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문의는 한혜림 간사 (201) 359-4186, hyelimhan20@gmail.com/ 이효연 목사 (201) 669-9979(c) Hyolee825@gmail.com로 하면 된다.

김대원 기자

# 교회 및 선교교회

<p><b>LA 지역</b></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점원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새벽-17와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명을 순종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p> <p><b>김기섭 담임목사</b> www.LAsarang.com</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b>연제선 담임목사</b></p> <p><b>LA 온하늘교회</b>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b>장태원 담임목사</b></p> <p><b>LA세계선교교회</b>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p> <p><b>한천영 담임목사</b></p> <p><b>갈릴리선교교회</b>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말-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p> <p><b>엘리아 김 담임목사</b></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진유철 담임목사</b></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p> <p><b>한기형 담임목사</b></p> <p><b>나성동산교회</b>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서건우 담임목사</b></p> <p><b>나성서부교회</b>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박현성 담임목사</b></p> <p><b>나성열린문교회</b>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328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0:45 6:00(토)</p> <p><b>김경철 담임목사</b></p> <p><b>나성제일교회</b>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토) 오전 6:00 (토)</p> <p><b>정우성 담임목사</b></p> <p><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p> <p><b>김경철 담임목사</b></p> <p><b>산타모니카교회</b>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s.com</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p> <p><b>조인수 담임목사</b></p> <p><b>써니사이드교회</b> 하루를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음 모임 오전 11:00</p> <p><b>김영구 담임목사</b></p> <p><b>나눔장로교회 엔키아선교회</b>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b>김요섭 담임목사</b></p> <p><b>열매교회</b>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토 옆) T.(213)380-0071</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b>정장수 담임목사</b></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넌트 지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b>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b></p> <p><b>요한 선교교회</b></p> <p>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연합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토) 오전 6:00 (토)</p> <p><b>류종길 담임목사</b></p> <p><b>임마누엘선교교회</b>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p> <p><b>신승훈 담임목사</b></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30</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b>청운교회</b> 선교에 흠뻑 소진, 초신자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b>민중기 담임목사</b></p> <p><b>충현선교교회</b>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b>곽부환 담임목사</b></p> <p><b>한마음제자교회</b>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연합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강지현 담임목사</b></p> <p><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애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b>기독일보</b></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b>김범수 치과</b> General &amp; Cosmetic Dentistry</p> <p><b>Bryan Kim D.M.D.</b></p> <p><b>김범수 치과</b></p> <p>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p>	<p>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b>대표 주해용 목사</b></p> <p><b>오늘 성경 읽으셨나요?</b></p> <p><b>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b>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침례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출강대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에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EM)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인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산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경대행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F.(310) 530-8400/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천이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침례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30  
새벽예배 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예배 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침례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블리제틀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침례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에베레츠  
주일(영성예배) 9:30am, 11:30am  
수요(영성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시리아 팔미라에 있는 바알 신전. ©wiki.

“뉴욕 바알신전 건축 계획 무산”

5월 뉴욕 타임즈 스캐어 광장에 ... 건축 무산은 기독교인의 승리

‘종말의 시작’ 저자이자 경제 붕괴 불로 그의 발행인 마이클 T. 스나이더는 카리스마누스를 통해 “5월 뉴욕 타임즈 스캐어 광장에 바알 신전 건축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은 엄청난 소식이며, 미국 전체 기독교인들의 믿을 수 없는 승리”라고 밝혔다.

이 신전은 지난달 뉴욕 타임즈를 통해 시리아 팔미라 바알 신전 앞에 있는 높이 1.463킬로미터의 거대한 건축물을 뉴욕 타임즈 광장과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 4월 한달 동안 재복원해 동시에 세워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트래펄가 광장에서만 아치형 건축물이 세워질 예정이며, 디지털 고고학 연구소는 계획을 변경하여 바알 신전과 같은 건축물 대신에 로마인들이 원래 팔미라에 건설한 승리의 아치형 건축물을 재복원해 짓기로 했다. 이것은 바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갑작스런 계획 변경의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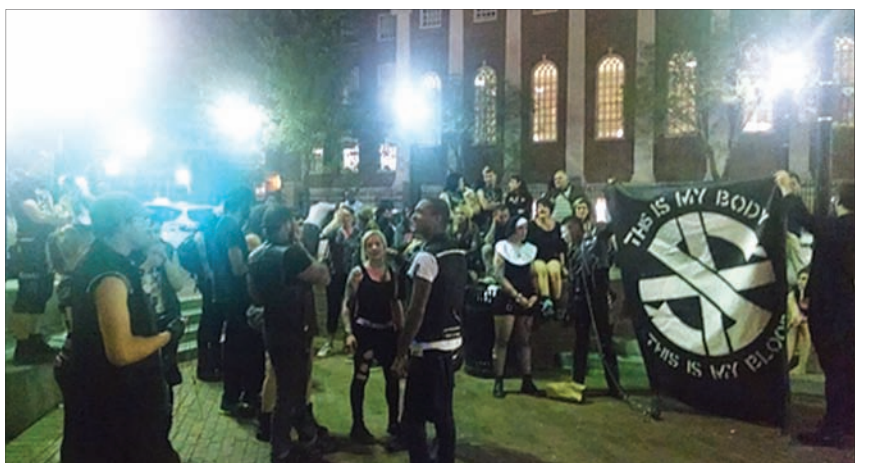
스나이더는 “바알 신전 건축물 계획 변경에 여러 큰 의문들이 있다”면서 “먼저는 다음 달 뉴욕에서 진행될 건축물 계획을 돌연 취소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에 세워질 건축물을 전혀 다른 건축물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스나이더는 “대안 미디어(지하미디어-alternative media)가 그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신전 건축이 무산되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지난달 뉴욕 타임즈에 바알 신전 건축물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나간 이후로, 대안 미디어를 통한 미디어 폭격이 발생했으며, 이 이야기는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 인터넷으로 퍼져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식에 대한 엄청난 부정적인 반응때문을 계획을 수정한 것 같다”고 덧붙여 말했다.

스나이더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이 소식이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갈 때,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건축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의인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했다.

스나이더는 “이 승리의 소식을 축하하자,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 나라가 진정한 화개가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 달에 뉴욕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국가로서 바알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들어 있는 이 나라를 깨우려면 엄청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덧붙여 말했다.

장스피어 기자



하버드대학 행사 취소 후 악마주의 권리 운동가들의 모습. ©Satanic Temple 페이스북

오클라호마 사탄숭배 행사... 반대 청원 10만 돌파

사탄 숭배 의식인 ‘검은 미사’(black mass) 취소” 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검은 미사를 감독하는 사탄 숭배 단체인 ‘앵그라 마이뉴의 다크마(Dakhma of Angra Mainyu)’는 성폭행 전과자인 아담 다니엘스 등에 의해 창립됐다. 검은 미사는 오는 8월 오클라호마시 시민센터 음악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이 칼리 마가 연출한 ‘마리아의 소비’(The consumption of the Mary)는 사탄주의에서 악신주의에 이르기까지 혁명을 보여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보수적 가톨릭 단체인 미국전통과가정 수호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Defence of Tradition, Family and Property)는 행사 반대 정부 청원에 앞장서고 있다. 가톨릭 사제들이 주축이 된 단체는, 앞서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검은 미사를 제지하는 데 성공했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나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 오는 8월 15일 오클라호마시 시민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사탄 숭배 의식인 검은 미사를 격렬히 반대한다”면서 “전 세계의 10억 명 이상과 오클라호마의 20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미국인들을 공격하는 이번 행사를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성 모독은 단순히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협회의 학생행동 대표 존 리치에는 “검

은 미사는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에 모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갑절의 공격”이라며 “복된 성례인 진실된 미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더럽히고 모욕하는 것은, 종교적 표현의 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종교적인 편견과 증오의 직접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사탄적인 검은 미사를 허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 줄 때, ‘우리의 사랑하는 국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래 하나된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야기한다”고도 했다.

지난 2014년 9월 앵그라 마이뉴의 다크마는 오클라호마 시민센터에서 검은 미사를 개최했는데, 당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 대변인은 “만약 우리가 이 행사를 취소했다면, 이번 사건을 면밀히 지켜봐 온 미국 자유인권협회에게서 고소를 당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적으로 보면, 사탄 단체에게는 이 검은 미사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리치에는 “만일 이 행사가 공동선을 비롯해 많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지닌 가치를 위협할 경우,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도 역시 이 행사를 그만두게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권리를 강조한 ‘수정헌법 제1조’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터키 버사에 있는 프랑스코회 문화센터 내부 모습. ©WWMV 제공

### “터키 정부, 1700년 넘은 곳 포함 6개 교회 몰수 결정” 현지 교계 강력 반발...소송 제기 나서

터키 남동부의 전쟁으로 파괴된 디야르바키르주 수르 지역 교회들을 당국이 모두 몰수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월드와치모니터는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대통령이 디야르바키르주의 재산 일부를 몰수했다고 전했다. 10달 동안 진행된 내전 이후, 도시의 역사적인 장소를 재건하고 회복한다는 이유에서다.

몰수된 재산 가운데는 가톨릭·개신교·정교회 건물들이 포함돼 있으며, 그 중 일부는 1,700년 이상이나 된 문화 유산이기도 하다. 터키는 인구의 98%가 무슬림으로, 에르도간 정부는 지난 3월 25일 몰수 명령을 내렸다.

아시아인·아르메니아인·갈데아인·터키인 기독교 개종자들은, 터키군과 쿠르드노동자당 간의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쿠르드족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남동부에서는 쿠르드노동자당과 터키군 간의 전투가 지속되고 있으며, 터키군의 무차별 포격과 진입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

터키 정부는 1년 전만 해도 실용주의와 민족 간 화해 원칙에 입각해 온건 쿠르드족을 포용했을 뿐 아니라, 독립을 추구하는 쿠르드족 무장 세력인 쿠르드노동자당과 평화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하고 쿠르드계 인민민주당이 선전하자, 협상을 깨고 쿠르드노동자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은 쿠르드족과 대립각을 세워 터키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강경 보수 세력을 결

집시키 데 힘입어 11월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정부의 교회 재산 몰수 결정은 아르메니아·시리아·갈데아 기독교인 공동체 가운데 분노를 일으켰다. 일부 교회 재단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기독교 공동체의 반발에 정부는 “유서 깊은 모스크들도 함께 몰수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에는 어떤 종교적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드와치모니터는 “터키 모스크는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는 반면, 교회 건물은 교회 재단들이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디야르바키르 개신교회의 아흐메트 구베네르 목사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재산 탈취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월드와치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 교회들을 몰수한 것은 보호가 아니라 차지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베네르 목사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터키 법정에서는 분명히 지겠지만, 유럽인권법정에 항소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월드와치모니터에 따르면, 지역 정부 관계자들도 “몰수 결정은 법적인 정당성이 결여됐고, 마을에 문화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디야르바키르협의회는 정부의 조치를 상대로 공식적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예배가 중단된 가운데, 일부 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

강혜진 기자

### “中법원, 첫 동성혼 소송 ‘불가’ 판결”

중법률 ‘혼인 당사자는 남녀 쌍방’ 규정...향후 판례로 굳어질 듯

최근 중국 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최초의 동성혼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쑨 웨린과 그의 파트너 후 밈리양(37)은 지난해 6월 23일 중국 남부 푸둥구 민정국에 혼인등기를 신청했지만 민정국이 ‘혼인법’ 규정을 들어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쑨씨는 “민정국이 혼인등기를 해주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후난 지역 창사(법원) 민원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초 지방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후 중국 법원은 먼저 이 소송에 대한 청문회를 가지기로 했다. 그러나 1월에 예정된 청문회가 4월 13일(현지시각)로 연기됐고, 판사는 이 청문회 몇 시간 후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

져 나갔다. 중국 법원은 중국의 관련 법률은 혼인 당사자를 남녀 쌍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혼인등기 신청은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일부 동성애 권리 옹호자들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 창사(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법정 밖에 서서 순서와 후서를 지지하고자 모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번 사건이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최초의 소송과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판례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는 일부 사회학자들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성 결혼만을 인정하는 중국 법규와 도덕·윤리 관습으로 지지와 반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장소피아 기자

### “IS 재정난 심각해 자금 마련에 고심”

꾸란 모르면 벌금 부과...대원 살해 후 장기 매매까지

재정난을 겪고 있는 IS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징수 명목을 늘렸다.

IS가 점령지 주민들에게 꾸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지 못한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정액을 내면 태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신설했다.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고칠 때도, 점령지 밖으로 나갈 때도 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IS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국제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인 IHS에 따르면, IS는 재정 수입의 50%를 세금과 점령지에서 몰수한 재산으로, 43%를 석유 판매로, 나머지를 마약 밀매와 전기 판매,

기부금 등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미군과 러시아군이 주도하는 공습으로 IS의 주요 석유 생산 시설들이 파괴되고 점령지도 탈환당하며, IS는 전체 수입이 작년 대비 30% 가량 줄었다. 지난해 IS의 월수입은 8천만 달러(약 920억 원)였으나, 지난 달에는 약 5,600만 달러(약 644억 원) 수준이었다.

점령지 면적이 줄면서 IS가 걷는 세금도 줄었다. 2014년 6월 이후 1년 3개월 동안 IS가 장악한 지역의 면적도 22% 줄었다. 세금을 내면 점령지 주민 수도 900만여 명에서 600만여 명으로 줄었다. 석유량도 일평균 2만 1천 배럴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강혜진 기자

<b>O.C./얼바인 지역</b>	
<b>김철민 장로</b> 결혼교회, 사모교회, 부부교회, 아버지교회 www.GodFamily.com www.CMFM.org <b>CMF선교회</b> 가정들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b>김일영 담임목사</b>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P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CT(한글) 토 9:30AM-10:00PM 대학원부E-college 주일 2:00PM NC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지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b>앤드류 김 담임목사</b>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집아래에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름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전집 7:00pm	<b>김영길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양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전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대학생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b>UBM교회</b>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b>감사한인교회</b>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b>오병익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생가주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b>민경엽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b>남가주 벤엘 교회</b>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b>나침반 교회</b>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 & Puente) T.(562)691-0691/F.(562)691-0698 / nachimban.org
<b>박재만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 (월-금)	<b>허귀암 담임목사</b>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b>남가주 순복음교회</b>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lfgc.com	<b>놀익한인교회</b>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C.(714)308-7038/usa8291@gmail.com
<b>안창훈 담임목사</b>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양예배 8: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b>김일권 담임목사</b> 주일예배 오전 11:30 EM 주일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늘푸른선교회</b>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b>다감사교회</b>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b>고현종 담임목사</b>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토 새벽 6:20	<b>이서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사바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b>디사이플교회</b>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b>미주비전교회</b>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b>김한오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예배 6:00	<b>이동준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 금요일, 예프리스콜 College 오후 1:00
<b>베델한인교회</b>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b>얼바인 아름다운 교회</b>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b>권혁민 담임목사</b>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예배 오전 11:30 KMC대학원부 오후 2:00	<b>홍성준 담임목사</b>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전 1:30
<b>얼바인 온누리교회</b>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b>얼바인 한민음교회</b>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b>박경호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b>우대권 담임목사</b>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b>얼바인 침례교회</b>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b>영광빛복음교회</b>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0 / (714)833-2568 daekwon.org
<b>김민재 담임목사</b>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b>엄영민 담임목사</b>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b>예진교회</b>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b>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b>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b>남성수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b>한기홍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b>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b>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b>은혜한인교회</b> 행복찬 교회, 삼림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b>주희록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b>최혁 담임목사</b>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성령집회 :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b>주님의빛교회</b>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b>주안에교회</b>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b>임경남 담임목사</b> 주일 성령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b>조원재 담임목사</b>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b>토기장이교회</b>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b>하나님의 은혜교회</b>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격동하는 지구촌의 종말론적 시대상황에 대한 선교전략의 재정립을 위해!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한 위대한 선교비전과 긴박성의 재확인을 위해!  
 700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국내외 최고 강사진 200여명과 세계한인선교사 1200여명을 비롯한  
 목회자, 평신도, 청년,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및 선교사자녀(MK) 등  
 포함 5000여명의 집결을 예상하는 이 시대 최대규모의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로렌 커닝햄 YWAM 총재, 데이빗 로스 안디옥커택션 대표, 폴 애실맨 CRU 부총재, 론 스미스 YWAM SBS 성경학교, 타드 존슨 고든컨벨 교수, 존 왈러스 아주사대학교 총장, 서삼정 아틀란제일장로교회,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김남수 프라미스교회, 장영춘 쾰른장로교회, 나광삼 큰무리교회



고석희 KWMC 사무총장, 이승중 샌디에고예수마을교회, 김혜택 뉴욕총신교회, 배현찬 주예수교회, 호성기 필라안디옥교회, 정인수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이동휘 바울선교회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강승삼 KWMA 전회장, 박기호 플러신학교 교수



김양재 우리들교회, 오정호 세로남교회, 장상길 송도주사랑교회, 마이클오 국제로잔운동 총재, 이동열 GKYM 사무총장, 송충석 KWMF대표회장, 안성원 KWMF사무총장, 한도수 KWMF공동회장, 김중국 KWMF공동회장, 박명하 KWMF공동회장, 강대홍 태국선교사



강성일 브라질선교사, 이극범 프랑스선교사, 최광규 도미니카선교사, 김영관 베트남선교사, 김경일 KWMF사무총장, 김정환 미주선교사, 정석천 태국선교사, 최용순 가나선교사, 이금주 말레이시아선교사, 김승호 일본선교사, 장영호 러시아선교사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전세계 한인선교사 1,200명**

**제3차 선교사자녀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17세 이상 선교사 자녀 400명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KWMC2016!**  
 KWMC2016은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선교대회입니다. 아래 대회들은 모두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동일한 일시인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동일한 장소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영어권대회 English Conference**

18세 이상 영어권 대학생/청년  
**GKYM FEST** 이동열 선교사 GKYM 사무총장

**어린이선교대회** **청소년선교대회**

3-12세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13-17세 고현진 전도사 고유진 전도사



오정호 세로남교회,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진재혁 지구촌교회, 김양재 우리들교회, 김동엽 목민교회, 김문훈 포도원교회, 스코트스키스트 플러신학교대학원장, 고석희 KWMC 사무총장, 한정국 KWMA 사무총장, 최형근 서울신대 교수, 김병운 필리핀 선교사, 강운식 기쁨병원 원장

**등록문의** [www.kwmc.info](http://www.kwmc.info) / [kwmf2016@gmail.com](mailto:kwmf2016@gmail.com)  
**KWMC** • 인도네시아 62-813-8100-9905, 070-8221-1361 • 미국 1-213-507-3875

KWMC2016 6월 6-10일	일반 (만26세 이상)	대학생/청년 한어권/영어권 (만18-25세)	청소년 (만13-17세)	초등학생 (만7-12세)	아동 (만3-6세)
1차 3/31 마감	□ \$300	□ \$200	□ \$150	□ \$100	□ \$50
2차 5/15 마감	□ \$325	□ \$225	□ \$175	□ \$125	□ \$75
3차 6/5 마감	□ \$350	□ \$250	□ \$200	□ \$150	□ \$100
<b>KWMC 대회숙박</b>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2인1실 \$150 /1인당 (4박5일)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2인1실 (2 베드룸) \$200 /1인당 (4박5일)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2인1실 (1 베드룸) \$215 /1인당 (4박5일)				동숙·무료 별도침대 <input type="checkbox"/> \$50

\*숙박을 안하실 경우 등록금만 내시면 됩니다. \* 하루만 참가하실 경우(DAY-PASS) \$100 입니다.  
 \*한 교회에서 단체등록시 10명 이상은 등록금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숙박비 예외)

**등록/문의 KWMC**  
 온라인등록 ▶ [www.kwmc.com](http://www.kwmc.com)  
 이메일등록 ▶ [kwmc@kwmc.com](mailto:kwmc@kwmc.com)  
 전화 ▶ 516-277-2081, 2082  
 팩스 ▶ 516-686-6128  
 ▶ 등록비가 인상되기 전에 속히 등록하시고 항공편도 속히 예약하실수록 저렴할 것입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KWMC2016**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901 E Alostia Ave, Azusa, CA 91702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WK, CTS 기독교TV



● 구소련 선교의 산실

# 러시아 모스크바 은혜신학대(원)

구소련 지역 선교 위해 지속적인 물적 영적 지원 필요해  
은혜신학교 통해 개척된 2천여 교회 중  
현재 1천 2백여 교회 복음 증거 계속해

### 1. 구소련 개요

구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은 1990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of) 대통령의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의 정책으로 인하여,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15개 공화국으로 분리가 되었다.

이는 러시아(Russia) 공화국, 벨라루시아(Belarus) 공화국, 우크라이나(Ukraine) 공화국, 라투비아(Latvia) 공화국, 리투아니아(Lithuania) 공화국, 에스토니아(Estonia) 공화국,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공화국, 카작스탄(Kazakstan) 공화국, 타지스탄(Tajikstan) 공화국, 키르기즈스탄(Kyrgyzstan) 공화국, 몰도비아(Moldova) 공화국, 그루지야(Georgia) 공화국, 아르메니아(Armenia) 공화국,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공화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24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영토를 가진, 이러한 소비에트 연방(구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연합체로서 지구 면적의 1/6에 해당되며, 이는 동서로 1만 킬로미터에 이르고 11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으며, 5개의 기후대(툰드라, 타이가, 스텝, 사막, 고산)가 걸쳐져 있었다.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길어 약 6만 킬로미터에 달했고, 이는 북극해 해안 총 길이의 2/3에 달하게 되었다.

1991년까지 구소련의 국경은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중국(China), 체코와 슬로바키아(Czech Republic & Slovakia), 핀란드(Finland), 헝가리(Hungary), 이란(Iran), 몽골(Mongol), 북한(N. Korea), 노르웨이(Norway), 폴란드(Poland), 루마니아(Romania), 터키(Turkey)와 접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소련의 위성국가가 된 나라들은 불가리아(Bulgaria), 루마니아(Romania), 폴란드(Poland), 체코와 슬로바키아(Czech & Slovakia), 헝

가리(Hungary), 알바니아(Albania), 유고슬라비아(Yugoslavia)가 있다.

구소련 종교의 중심이 되는 정교회(Orthodox church)는 A.D.988년, 키예프(Kiev) 대공화국의 블라디미르(Vladimir) 1세가 동로마 제국에서 파견 나온 정교회 성직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교회는 러시아의 국교가 되었다. 그들이 사용한 슬라브어는 A.D. 864년, 모라비아(Moravia) 지역에 비잔틴(Byzantine) 선교사로 파견되었던 성 키릴루스(St. Cyril)와 성 메토디우스(St. Methodius) 형제의 키릴(Cyril) 문자 발명으로 고안되었던 것으로서, 러시아의 정교회로의 개종은 이 키릴(Cyril) 문자로 된 슬라브(Slavic)어로 보다 확고하고 영구하게 확립시켰다.

이러한 정교회는 주로 동유럽과 아시아 서부지역(주로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에 퍼져 있으며, 그리스(Greece), 러시아(Russia), 우크라이나(Ukraine), 벨로루시(Belarus), 몰도바(Moldova), 세르비아(Servia), 몬테네그로(Montenegro), 루마니아(Romania), 불가리아(Bulgaria), 그루지야(Georgia), 마케도니아(Macedonia) 공화국, 키프로스(Cyprus)가 정교회 국가이다.

그 후 1992년 1월 1일부로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Boris Yelchin)에 의해,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Estonia), 라투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와 그루지야(Georgia)를 제외한 11개 공화국으로, 독립국가 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을 이루었다. 현재는 9개 회원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작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스탄, 우즈베키스탄)과 1개 준회원국(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지아(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는 2008년과 2014년에 각각 탈퇴하였다. 현재 CIS 본부



수업을 마친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는 벨라루스(백러시아) 수도인 민스크에 위치하고 있다.

### 2. 러시아 모스크바 은혜 신학대학(원)

1990년에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개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미국 은혜한인교회(1999년부터 GMI에서는 24명의 선교합창단(대학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구소련 선교를, 1990년 7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3월에 홍성훈 목사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파송되어, 선교센터 세 워 구소련 선교를 준비하였다).

사할린(러시아), 하바롭스크(러시아),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알마타(카작스탄), 모스크바(러시아) 순으로, 한 달 반 동안 찬양 전도 집회를 하여, 10,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동시에 상기의 5곳에 9월부터 파송된 선교사들 5가정에 의하여, 은혜교회 개척이 구소련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1992년 3월에 시작된 러시아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를 통하여, 구소련 선교가 더욱 확장되게 되었다. 2003년 3월에 5년제 신학대학 및 대학원으로, 러시아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1992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기~26기까지 2,605명이 입학, 2,461명이 졸업하여, 그들을 통하여 구소련 전역에 2,000여 교회가 개척되었으며, 현재는 1,200여 교회가 남아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

현재의 신학교 건물은 2012년 7월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9월까지 중, 총 7개월간에 걸쳐서 반 지하 및 지상 2층과 반 지하 3층(총 3개 층)으로 건축이 되었다(6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 강의실, 식당시설).

감사한 것은 신학교 건축을 위한 땅의 구입과 건축비가 모스크바 은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생들의 헌금으로 많이 충당이 되었으며, 구소련 GMI 선교사들과 미국의 은혜한인교회와 한국의 은혜교회(김광신 원로목사가 2004년 말 개척을 하였으며, 현재는 김태규 목사가 담임하고 있으며, 출석교인 600여 명이 된다)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건축이 된 것을 들 수 있다. 건축에는 카작스탄 가라간다 은혜교회 교인들과 재학생 신학생들 및 모스크바 은혜교회 성도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다. 전체 건축 및 신학교 운영은 13기 졸업생인 니콜라이 목사와 예레나 사모 부부가 맡아서 수고하였으며, 계속 수고하고 있다. 또한 신학교 부지(가로 100m & 세로 60m) 안에 1층과 2층이 섞인 사무실과 강의실 건물, 지난해 5~7월까지 3개월 동안, 현지 성도들과 신학교 재학생들의 수고로 건축한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

신교의 핵심은 선교지 현지인들의 제자화와 그 제자들의 교회개척을 통한 영혼구원 및 그들을 통한 자립, 자치, 자전, 성경적 자신화를 통한 토착화로 볼 수 있다.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는 대표적인 GMI의 선교전략을 보여주는 사역이다.

필자가 23년 전, 구소련 전체 선교센터의 실무자(디렉터 홍성훈 목사)와 유의경 목사가 순차적으로 담당)로서 4년 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모스크바 은혜신학교의 사역 지원과 1993년과 1994년의 대형집회(각각 11,000여 명 참석 및 이 중, 1,000여 명은 미국, 한국, 유럽에서 온 팀 멤버들) 및 기타의 수많은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켜주시 주님께 다시 한 번, 이번 모스크바 사역을 위한 방문을 통하여 감회에 젖으며 영광과 찬양과 감사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번 선교교 전체 강의를 통하여, 모든 신학생들(26기생 47명)이 선교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깨닫고, 앞으로 선교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 선교신학과 선교역사와 문화인류학과 비교종교학 및 선교전략을 잘 배우고, 지켜 행하기를 기도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초교파적인 구소련 선교를 위한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물질지원 및 단기선교와 장기선교에의 헌신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양태철 목사  
GMI(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러시아 GMI은혜신학대학(원) 전경(이 건물 부지 구입과 건축에는 이 학교 졸업생들의 작은 헌신들이 큰 기여를 했다).



GMI은혜신학대학(원) 학장 니콜라이 목사 부부와 함께 한 양태철 목사(중앙).



##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봄학기 학생모집

봄학기  
2016년 3월 21일(월)~5월 28일(토) 수업  
(봄학기 등록마감 3월 21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p><b>모집 부문</b></p>	<p><b>신학 대학교</b> 신학과(BA) - 4년 / 126학점</p> <p><b>신학 대학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li> <li>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li> <li>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li> <li>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li> <li>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li> </ol>
	<p><b>일반 대학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li> <li>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li> <li>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li> <li>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li> <li>5) ESL 과정 - 1년</li> <li>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li> </ol>
	<p><b>홈쿨링</b></p> <p>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p> <p><small>*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small></p>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미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금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결패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장외), 제작, 반죽물인쇄 전문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녀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천연항산화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산화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불임증 (자궁후,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서울메디칼 그룹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한수희 칼럼(4) 공감적 경청1

# 공감적 경청이 어려운 이유(후천적 난청)

십 수년간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잘 듣는 법에 대해 배워본 적이 있는가?

책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글로 풀어내거나 말하는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운 반면, 듣는 법에 대해선 대체로 관심도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잘 듣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훈련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잘 듣는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며, 사랑과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실천적 사랑의 한 방법인 공감적 경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청의경(傾)은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몸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듣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다. 청(聽)은 귀(耳) 자와 임금 왕(王)을 좌변에 쓰고 있다. '왕의 귀'로 들으라는 것이다. 한자적 의미는 커다란 귀로 들으라는 표현이다. 우리에게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 동료나 이웃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귀로 들어야 하는 것이 듣기의 기본적인 첫 출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변에는 열십(十) 밑에 눈 목(目) 자가 있다. 열 개의 눈을 갖고 들으라는 의미이다. 열 개씩이나 되는 눈을 동원해 가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왜 보는 것에 대해 말

하는 것일까? 경청에는 보는 것 역시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열 개의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말하는 상대의 표정이나 몸짓 뿐 아니라 불안함, 혼란함, 당황스러움, 부끄러움 등으로 입 밖에 내어 놓지 못하는 그들의 진짜 마음이다. 우변 밑에는 한 일(一)과 마음 심(心)이 있다. 하나의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다. 그 하나의 마음은 다름아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결국 경청이란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말의 내용을 파악함은 물론, 몸짓, 표정, 그리고 음성에서 섬세한 변화를 알아 차리고 깔려 있는 메시지를 감지하며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경청의 의미만 살펴봐도 벌써 골치가 아플지도 모르겠다. 잘 듣는 방법에 대해 배우기도 전에 이미 듣는 작업이 녹록치 않음을 느꼈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내 불일을 보면서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그저 듣는 것이 경청이 아니라는 것과 잘 듣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경청을 배우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청이 어려울까? 첫째, 생리적인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5배 빨리 듣는다. 즉 1분에 120 단어를 말한다면 1분에 600단어를 들을 수 있다. 남는 시간에 무얼 하겠는가? 완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기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가 그 만큼 쉽기 때문에 경청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말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경청이 더욱 어렵다. DISC라는 자기 이해 검사를 통해보면 "D" 유형, 즉 주도형인 사람들은 서론이 길어지는 것을 참기 어려워하고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고 싶어한다. 결과와 유익에 대해 먼저 알리고 세부적인 것은 필요할 때 말해야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변적인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하면, 그들은 경청하기가 무척 어렵다. 반면 "C" 유형인 신중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방식뿐 아니라 대화의 패턴에서도 일이 일어났던 기승전결을 가능한 자세히 이야기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신중형인 사람이 주도형의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집중해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 할 때가 많다. 따라서 잘 듣기 위해서는 내에 대한 이해와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자기 안의 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벌써 내 생각이 머리에 가득하다. 내 안에 가득 찬 소리가 상대방의 말을 편견이나 판단 없이 듣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는 들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마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려면 내 안의 소리를 음 소거(mute)시켜야 한다. 물론 필요할 땐 권면도 해야 하고, 직면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성급한 권면과 직면의 단계에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는 일단 내 안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귀와 열 개의 눈을 가지고 잠잠히 들어야 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을 통해 존중 받는 것을 느끼며, 이해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이야기 해도 늦지 않다. 아니 오히려 그때가 상대의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이다.

셋째,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말을 막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듣는 자신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 동기가 작용하는 경우가 꽤 많다. 나의 가치에 대한 위협, 권위에 대한 위협, 편리에 대한 위협, 안전함에 대한 위협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상대의 입을 막아 듣는 입장에서 말하는 입장으로 성급히 역할을 바꾼다. 고상하게 역할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때론 권면과 훈계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겠다고 '경청'이라는 것을 하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모두 뿌리깊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임을 시인해야 한다. 그리고 정직한 시인을 통해 노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이유 외에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상대의 말은 듣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후천적 난청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경청을 잘 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들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왕의 귀를 갖기 위해 사랑의 보청기를 꺼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바로 우리 자신의 속으로 가까이 맞아들이는 영적 현대인 경청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청하는 행위의 아름다움은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 의하여 받아 들여졌음을 느끼는 것이며, 감정의 표현이 용납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며, 나를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너를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친밀하고 영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면, 이를 가로막는 나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적극적 경청을 실천해 보자.

●김만태 전문칼럼(1)

# 대학설립 ABC “미국에서의 종교특례대학 설립”

미국에서 신학교를 설립하려면 먼저 주정부 사립대학교육국(BPP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교특례대학(religious exempt school)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대학이다.

그런데 각 주마다 정책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일리노이 주에서는 2년제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려면 전공분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일반대학 수준에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학교 역시 일반대학들과 같은 수준에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종교

특례대학 형태로서 2년제 학위부터 박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게 해준다.

종교특례대학은 일반대학 설립보다 훨씬 간소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이 들며 요구사항이 적다.

첫째, 종교특례대학이라는 명칭은 주정부의 일반 사립대학 표준 준수로부터 면제된다는 뜻이다. 일반대학은 승인받은 후 매년 BPPE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종교특례대학은 승인(verification)을 받는 즉시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둘째, 종교특례대학은 신청비가 250불이지만 일반대학은 5,000불이다.

셋째, 일반대학은 신청시부터 5



김만태 대표  
SAS인가컨설팅

년 안에 필수적으로 연방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종교특례대학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일반대학은 이외에도 많은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하지만 종교특례대학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종교특례대학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신청기관이 교단 혹은 교회, 선교회, 기독교 성격의 연구소이면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 기관에서 종교 교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수여할 수 있는 학위는 종교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신학전공의 경우 B.Th.(신학 학사), Th.M., M.Div., D.Min, D.Miss, Th.D 학위를 수여할 수 있지만, B.A., M.A. 학위는 수여할 수 없다.

일반 전공의 경우 종교와 융합된 학위를 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음악전공은 기독교 음악, 교회 음악 학위를 학사, 석사, 박사까지 모두 수여할 수 있다.

또한 종교특례대학 승인과 관련, 그 승인을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한

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처음 신청할 때 서류를 완전하게 구비해서 제출하지 않아서이다. BPPE의 인력부족과 사무적 체로 인해 신청서 제출시에 바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연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BPPE에서 요구하는 종교특례대학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승인을 받는 데에는 2개월 정도 걸리지만 빨리 나오는 경우는 2주 안에도 나온다.

기타 자세한 문의로는 SAS 인가 컨설팅으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531-7215  
▲이메일: summitus37@gmail.com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http://www.fbmcopiers.co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못해 그래도 크리스천

추창호 | 요단 | 304쪽

모태신앙은 “교회 환경에서 성장하여 여전히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됐다. ‘모태신앙인’은 당연히 영적 교훈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실천적 신앙을 뿌리내리지 못한 채 ‘못해신앙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저자는 그들에게 ‘놓치고 있던 복음’, 즉 기분을 전수하고 있다.



#### 전도에 날개를 달다

곽준상 | 콤팩 | 278쪽

25년간 한신교회 장로로 일하면서 이중표 목사의 인격과 사역, 복음의 열정을 배운 곽준상 장로가 자신의 전공인 마케팅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별세와 만나면 어떻게 전도로 나타나는가를 이 책을 통해 보여준다. 이론만이 아닌 전도 현장에서 임상적으로 실험한 최고의 전도 전략을 소개하여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전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준다.



#### 세계관 전쟁

이태희 | 두란노 | 320쪽

비윤리적 성문화 동성애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올해 서울 광장 쿼터축제 승인으로 또다시 우리나라도 동성애 문제로 점점 더 골머리를 앓아 가고 있다. 저자는 동성애자는 성도착증 환자의 더 강한 욕구가 한계단 더 선을 넘은 상태라며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독교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사람 중 하나이다. 이 책은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시각과 해법 이해에 도움을 준다.



#### 한 알의 밀이 되어

다카하시 미치아키 | 대한기독교서회 | 208쪽

이 책은 1970-80년대 약 25년간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자들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한 한국인 선교사 정해련의 일대기를 그린 책이다. 그의 삶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는 말씀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2011년에 일본에서 출간되어 일본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문제 자녀가 보석 자녀다!”

좋은 자녀, 나쁜 자녀가 따로 없다. 다만 문제 부모를 위해 수고할 뿐이다.

◆**고난 중 최고의 고난, 자녀 고난**  
오늘도 자녀 문제로 죽음보다 더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부모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도 없고 끝도 없어 보이는 자녀 문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해 보지만 지치기만 할 뿐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에 내 자녀만 문제 있는 것 같고, 나 이상의 고통을 겪는 이는 없어 보입니다. 나는 별로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저런 자식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 자녀가 보석 자녀라고?**  
하지만 저자는 문제 자녀가 보석 자녀라고 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를 통해 내가 말

씀이 들리고 거룩을 이루어 간다면 그 자녀가 최고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 자녀가 오히려 문제 부모를 위해 수고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 문제 자녀의 수고를 통해 부모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 부모입니다**  
자녀 문제는 사실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가 성공 우상, 자녀 우상에 사로잡혀 자녀를 달달 볶아 생긴 부모 삶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난 억울하다”, “난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한 죄밖에 없다”고 부르짖으며, 자녀 문제를 자녀 탓으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김양재  
두란노 | 240쪽

로 돌린다면 아직 죽음의 터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자녀가 수고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

녀가 대학에 불든지 떨어지든지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돈을 벌어서 잘살게 되어도 기뻐하지 않고, 못살게 되어도 슬퍼하지 않는 그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책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문제 부모, 문제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어울려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나누면서 가치관과 삶이 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 부모, 문제

자녀가 있어 속을 끓고 있든지, 또 설령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목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 가정 안에도 반드시 천국의 소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지은이 김양재 목사는 우리들교회 담임목사이다. ‘목욕탕 교회, 때 밀이 목사’는 김 목사의 별칭이다. 우리들교회에 가면, 김양재 목사를 만나면 사람들은 위선과 체면, 인격이란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낸다. 가솔 직전, 부도 직전, 이혼 직전, 자살 직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서로 때를 밀어 주면서 치유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이영인 기자

# Church Property Solution 교회부동산 전문회사

Division of Max Capital Group, Inc.

## 교회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For Sale**  
Fullerton: \$1.25 M, 250석 본당, 친교실, 부엌, 교육부 교실들, 충분한 파킹  
Yorba Linda: \$4.895 M, 225석 본당, 3.25 AC Lot, 친교실, 부엌, 크리스천 학교  
Downey: \$1.25 M, 160석 본당, 친교실, 부엌, 교육부 교실들  
기타 지역별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찾아 드립니다.

**For Share**  
Anaheim Hills: 월 \$3,500.00,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Garden Grove: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Diamond Bar: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Whittier: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기타 지역별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찾아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와 리스 | 인더스트리/오피스 건물/비즈니스 팍을 교회로 변경 사용 | 교회 건물 렌트 | 건축/증축/보수 상담 | 교회 부동산 용자 각 시의 CUP 받는 것을 대행 | 예배실 디자인 | 교회 미디어 상담/디자인 | 이에 필요한 모든 벤더들과 협력

**교회 부동산 매매**  
Church Property Sales

**교회 부동산 리스**  
Church Property Lease

**교회 미디어 디자인**  
Media Design & Consulting

**Mark Kim, CEO/Broker**  
BRE # 01338646, NMLS # 3933349  
PH (909)643-3994  
Email: markk@churchpropertysolution.com

**Stephanie Jung, COO**  
BRE # 01849106  
PH (562)480-6912  
Email: sjung@maxcapitalgroup.org

**Max Capital Group, Inc**  
135 S State College Blvd Suite 200  
Brea, CA 92821  
PH (714)987-6120 | Fax (909)635-6116  
www.churchpropertysolution.com  
BRE # 01987951 NMLS # 1425276



# “기도로 채워가는 여백의 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기도 ... 그 옆 여백에 써보는 내 삶의 이야기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저자는 한쪽 면을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기도로 채운 반면, 다른 한쪽 면은 여백으로 남겨두었다. 한쪽에 실린 글을 다른 쪽 여백에 필사하는 방식이다. 인용한 글의 길이는 대체로 짧다. 따라서 필사하고 남은 여백에 얼마든지 자신의 기도를 적을 수 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백의 특성에 맞춰, 특정 선배의 글에 빚어서 자신의 현실 고투 또는 감사를 기록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독자 하기에 달렸다. 그만큼 특별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다.

만약 저자가 책에서 치부 없이 위대함에 이른 선배들만 다루었다면, 적어도 될 위대한 이들의 성취만 나열했다면 책에 실린 명문의 가치는 현격히 떨어졌을 것이다. 이 경우 오히려 이웃 아저씨의 인생 회고담이 명문보다 나올 수 있다. 공감의 원천은 누군가의 글이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동질감에서 오기 때문이다.

저자가 인용한 글이 초대교회 교부,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 종교개혁자, 이름 없이 살다간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고백과 다짐, 울부짖음, 회개, 하나님과의 내밀한 대화 등으로 무한히 확장해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 역시 그들이 겪었을 실패와 좌절, 환희의 순간을 두루 또는 일부분이라도 겪게 마련이라 공감할 조건을 적잖이 갖춘 셈이다. 그러니 읽기에 앞서 ‘생경한 구석이 없지 않을까’라는 걱



쓰면서 응답받는 감사기도  
유성준  
평단 1288쪽

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역시나 아는 인물의 글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반면 그렇지 못한 인물의 글은 감정 이입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다는 문제가 있다. 그 점에서 이 책에 아쉬운 구석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그와 같은 아쉬움이 다양한 필자로 진용을 갖춘 책에서 주로 확인되는 ‘마음에 맞는 글을 선택해가며 읽기’라는 또 다른 감정을 압도하지는 못한다. 아는 인물의 글은 거듭 되새기며 읽히, 모르는 인물의 글은 각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 되도록 감상하며 읽기를 권장한다.

단순히 선배들의 글을 필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활자가 드러내지 못한 인물 특유의 생명력을 글의 행간을 통해 끌어당기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글이 ‘손으로 옮

겨 쓰면서 드리는 (자신만의) 기도’로 바뀌는 경험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역시나 상상력은 행간을 북돋는 유의미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영동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까지 용인하지는 취지는 아니니 이 점 새겨들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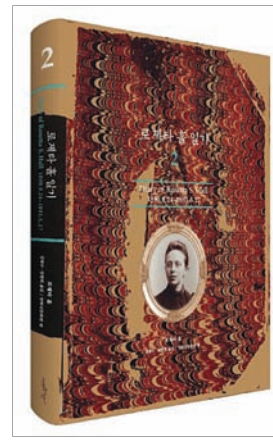
필사를 위한 책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듯, 이 책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받는 등의 유익을 얻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런 유익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기독교 서적은 저자의 말처럼 다른 유익에 앞서 ‘하나님과 나의 내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통렬한 자아성찰과 분명한 회개에 이어 희생을 바탕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삶의 결단으로까지 간다면 그만큼 유익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가없는 세계로 독자를 인도할 여백에서, 이 책은 어느 책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여백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독자의 판단에 달렸다. 앞서 설명한 대로 글과 삶을 같은 평행주 위에 놓고 가감 없이 바라보기를 권한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머문 도상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가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야말로 가없이 펼쳐진 궁극의 지평선이 ‘수건을 벗은 얼굴(고후 3:6-11)’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 부분에 이 책의 유익이 돋을 새김되어 있다.

김정완  
크리스찬북뉴스

# “백년전 선교사들의 생각과 상황”

로제타 홀 선교사의 초기 한국 선교사역 이야기



로제타 홀 일기2  
로제타 홀  
홍성사 | 344쪽

이 일기에는 100년 전 로제타 선교사가 펼쳤던 구체적인 선교 내용 뿐만 아니라 함께 일했던 선교사들의 모습, 한국 여성들이 서양사회의 치료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로제타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 박에스터를 만나 그녀에게 의학을 가르치는 과정, 여메리 전도부인의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 장면, 양반집 부인과 가난한 여인들을 똑같이 치료하는 모습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일기에는 100여 년 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 자신이 구매하거나 사용한 물건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카탈로그, 티켓, 주교받은 편지가 실물로 첨부되어 있으며, 후일에 로제타 선교사가 일기 내용을 보완하거나 정정하여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양화진문화원은 2015년 9월에 1권을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엔 두 번째 일기를 출간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6권 모두를 출간할 계획이다.

『로제타 홀 일기』의 특징으로 일기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각각의 페이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수록하고, 그 앞부분에 번역문을 실어 일기를 읽는 현장감을 극대화한 것을 꼽을 수 있겠다. 로제타 선교사는 일기를 단순히 글자만 채운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사진과 편지, 실물 자료 등을 첨부하였고, 특히 두 자녀의 육아일기에는 머리카락, 해 입힌 옷감이 실물로 붙였으며, 아이들이 커가며 변화하는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손 모습을 그대로 그려 넣는 등 다양한 시각 이미지를 추가했다.

이번에 출간한 『로제타 홀 일기 2』에는 1890년 9월 24일부터 1891년 5월 17일까지의 일기가 담겨 있다. 로제타가 중간 기착지 일본에 머물렀던 동안의 모습,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약 한 달의 여정과 서울에서의 약 7개월 동안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 요코하마에 1890년 9월 24일에 도착하여 여러 곳을 방문했던 일과 10월 9일 일본을 떠나 부산과 제물포를 거쳐 10월 14일 서울에 들어온 일 등 약 7개월간의 의료 사역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수민 기자

# 삶의 성찰과 실천 위한 묵상집

삶의 성찰과 실천을 위한 묵상집 「오늘-현대인을 위한 묵상」(컨콜디아사)이 출간됐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묵상집이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 대한 묵상을 내용으로 한다. 1년 365일 바깥 세상에서 들려 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돌이켜 보게 만든다.

저자가 끌어 오는 이야기의 소재는 다양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 바둑, 커피, 헬라어나 라틴어 어휘, '개념 있다' 등과 같은 최신 유행어, 카메라의 기능, 네발 대지진, 어린이집 폭력 사건,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 등은 세상을 다 훑는 것만 같다.

또한 묵상 글이 끝나면 항상 이에 연결지어 생각해볼 만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다. 이를 통해 세상에 달



오늘-현대인을 위한 묵상집 전의영  
컨콜디아사 | 368쪽

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성경으로 돌려놓는다. 신앙인들의 묵상의 근원은 역시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소

박한 깨달음을 안겨 주는 대목이다.

또한 루터회 소속 목회자가 쓴 묵상집답게, 구성은 교회력을 중심으로 한다. 저자는 전류리루터교회를 목회하는 전의영 목사다. 일상 묵상임에도 이렇듯 성경과의 연결점 모색이나 교회력에 따른 구성을 통해 기독교적 토대가 탄탄하다.

일상과 성경을 능란하게 연결시키는 저자의 전공은 구약학이다. 강남대에 제출한 그의 박사학위논문은 연구 방법론이 설화(narrative) 비평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유독 이야기에 능한 듯하다. 나직이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가 지면을 넘어서 우리 귀에 닿는 것 같다.

더욱이 제목이 보여 주듯 언제나 묵상의 마지막에는 오늘을 위한 간단한 제언이나 잔잔한 감상을 제시한다. 김진영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동란노와 기도운동종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터와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빛은  
그를  
되면  
아직  
않았다

## 진도에 날개를 달아라

**추천!!!**

이음재 목사 (분양현신교회)  
소강석 목사 (세에교회)  
전병금 목사 (강남교회)  
장경홍 목사 (대전중문교회)  
주성민 목사 (세계로 금원교회)

진도는 온사 받은 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최고의 진도서다.  
한신교회 5년 연속 진도왕, 교단 2회 진도 우수상, 20여 교회 진도집회 인도 등 진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박준성 장로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기에 진도 내내 기대와 감동이다.

박준성 지음 | 278면 | 13,000원

##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는 내리고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는  
실용성

심대지 설교본이나 4페이지 설교, 이야기 설교, 분석 설교 등 다양한 설교 구성 방법을 본문에 맞게 적용해온 저자에게 설교 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내용이나 구성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는 청주금천교회 김진홍 목사의 10번째 설교집.

김진홍 지음 | 384면 | 13,000원

## 아빠!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신앙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거처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에 신앙고백의 기본 설교 22편을 담았다.

아빠!  
어떻게  
말과  
듣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요?

신상수훈은 천국 시민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고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삶과 규범을 가르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바로 알고 실천적 행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최명일 지음 | 360면 | 13,000원(라권)





This year's SOLA Conference, which was attended by some 500 students and pastors, focused on the theme, 'Light After Darkness.'

## In Christ, 'There Is Light After Darkness'

BY RACHAEL LEE

Hundreds of mostly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from over 50 different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gathered at New Life Community Church in Artesia from April 15-16 for the fourth annual SOLA Conference, a conference for collegians co-hosted by several Korean American and Korean immigrant churches.

The turnout of some 450 students and about 50 pastors makes this year's conference the largest in its history. College students from many major Korean American churches (the term being used broadly to refer to churches that have a majority of Korean American staff and congregants) includi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Gospel Life Mission Church,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Sovereign Grace LA, and Good News Chapel, as well as English congregation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cluding Bethel Church, Oriental Mission Church, LA Open Doors Church, New Life Vision Church, Good Stewards Church, and All Nations Church, were seen in attendance.

This year, in accordance with the theme 'Light After Darkness,' the scope of the conference focused much on the hope and victory that is found in the gospel in the midst of the shame, hurts, challenges, obstacles, and failures that all peo-

ple deal with in life.

Chris Brown, one of the senior pastors at North Coast Church and one who has had years of experience ministering to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 through his ministry at Azusa Pacific University, said that such a theme is particularly poignant as college students today "have to deal with a lot more than the college students from 40 years ago," due to the accessibility that they have to all kinds of information.

Brown said that Christians must not run away from, nor blame others for, those broken aspects of life, but "face and accept the truth" about themselves, as he addressed the collegians during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Just as Jesus brought to light the truth about the Samaritan woman who had five husbands (John 4), Jesus wants to deal with those painful aspects of each person, Brown said.

"He will cross every racial, gender, political line to deal with it," he said.

"Jesus said that we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he explained, adding, "Jesus is saying, 'You won't be able to worship Me spiritually unless we go there.'"

Alex Choi, the senior pastor of Sovereign Grace LA, emphasized that Jesus himself experienced deep pain while on earth.

"Because of what he went through, he can understand our

pain," Choi said, an idea which was echoed by Harold Kim, the senior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If you feel like you fall again, and again, and again, remember that Jesus got beat down again, and again, and again — but he got up," Kim said, "and so will every Christian."

Kim, who spoke during the last session on the story of Lazarus being raised from the dead, also emphasized the power of God, the love of God, and the glory of God that is revealed through brokenness.

Jesus' raising of Lazarus from the dead reveals his power, Kim said, and it also reveals his love for Lazarus as Jesus risked his own life to go to Lazarus and raise him from the dead. But in response to just those two factors — the power and love of God — some may still have lingering questions, Kim said.

"If God is powerful and loving, then why does he allow pain? Jesus, why did you let Lazarus even die in the first place?" Kim posed.

He pointed out that though Jesus had the power to stop Lazarus from dying, he chose to wait instead, that God's glory would be revealed and that even more people would see and be in awe of God.

"Because Jesus is all powerful and supremely loving, he let [Lazarus] die," Kim said, "to bring about an even greater revelation of God."

Also in accordance with the theme, many of the breakout ses-

sions at the conference featured topics such as understanding how past pains shape God's future plans; understanding how the gospel takes away shame; discerning one's calling from one's life experiences; and creating a structure to be more focused in following Christ in the midst of a distracting world, among others.

Meanwhile, about 50 pastors also attended the conference, and a luncheon panel for the pastors was also a part of the event, during which Harold Kim, Alex Choi, and Julius Kim, the dean of students at Westminster Seminary Escondido and associate pastor at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shared their insights and experiences from ministering in their respective contexts.

A seminar exclusively for women was also featured during the conference, during which Christine Yi Suh, the assistant director for spiritual formation and care at Pepperdine University, shared her experiences, thoughts, and strategies in trying to thrive in her discipleship to Christ in the midst of the busyness of life.

The conference was co-hosted by seven local churches, including Good News Chapel,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Gospel Life Mission Church, Good Stewards Church,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and New Life Vision Church.

## Korean Americans to Join in Prayer for the Nation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Christians in various areas throughout the nation will be gathering on May 5 for the 65th annual National Day of Prayer. In Southern California, Korean American Christians will come together in Orange County for corporate intercession for the nation.

This year, the theme for the National Day of Prayer (NDOP) is 'Wake Up America,' and takes the first portion of Isaiah 58:1 as its theme verse: "Shout it aloud, do not hold back. Raise your voice like a trumpet." The verse in its entirety reads, "Shout it aloud, do not hold back. Raise your voice like a trumpet. Declare to my people their rebellion and to the house of Jacob their sins," the latter half which directly mentions sin and emphasizes the need for repentance.

The prayer gathering organized by the Korean church leaders will be taking place at 7:30 PM on May 5th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and will be divided into worship and prayer portions,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Some of the topics that will be prayed over include repentance and revival; schools and families; churches, culture, and social justice; the President, elected officials, and the upcoming election; revival in the younger generation, student organizations, and missions; and the leaders in South Korea, and reunification in Korea, among others. Four to five speakers will be leading each prayer topic.

As the event is hosted by Korean church organizations in the Orange County area, most of those who are leading prayers are pastors ministering in Orange County.

Most of those who are leading prayers are also first generation Korean pastors, with only a few leaders who minister in the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 context such as Pastor Steve Choi from Crossway Community Church and Seong Joo Cho from SOON Movement.

Only one woman is featured as one of the speakers at the event.

The National Day of Prayer was initially called for by President Abraham Lincoln in 1863 when he proclaimed a day of "humiliation, fasting, and prayer," according to the NDOP Taskforce, and officially began when President Harry Truman signed a joint resolution passed by Congress in 1952.

Though the NDOP Taskforce was sued and the event was found unconstitutional in 2010, a decision by a 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 reversed that decision in 2011. When President Obama also proclaimed a National Day of Prayer at the time when it was found unconstitutional, the status of the NDOP among the elected officials was also affirmed.

Elected officials from Southern California will also be prayed over during the event.

Gatherings of corporate prayer will be taking place in an estimated number of 42,000 different locations across the nation, and government officials in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will also be gathering at the Cannon House Office Building on Capitol Hill from 9 AM to 12 PM.

## PCA-CKC Hosts Annual Forum for EM Pastors

BY RACHAEL LEE

The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s Coalition of Korean Churches, also known as PCA-CKC, hosted its fifth annual forum for English-speaking pastors, this year at Si-loam Korean Church of Atlanta.

Over 50 pastors attended this year's forum from various places throughout the country. Though the forum for the English-speaking (EM) pastors used to take place simultaneously with the Korean-speaking (KM) pastors' annual conference, this year the two groups have their gatherings separately. The forum for the EM pastors took place first from April 18 to 20, and the KM pastors will have their conference next week from April 25 to 28.

This year's forum also stands out from the previous four in that it featured the most speakers since the forum's inception, as well as

the most amount of PCA staff among those speakers. Lloyd Kim, the coordinator of the PCA's mission agency called Mission to the World; Stephen Estock, the coordinator of the PCA's Committee on Discipleship Ministries; Danny Kwon, the pastor of youth and families at Yuong Sang Presbyterian Church; Henry Koh, the coordinator of Korean ministries for the PCA's Mission to North America; and Min Chung, the senior pastor of Covenant Fellowship Church, who has also been featured as a speaker for all of the PCA-CKC's English-speaking pastors' forums, spoke during this year's event.

The forum, which was themed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Discipleship and Missions in the Local Church,' started out on Monday by focusing on the role of the pastor, and then proceeded to discuss discipleship and missions during the second day. The last



(Photo courtesy: PCA-CKC) About 50 pastors attended the PCA-CKC EM forum.

day of the forum featured a session regarding leadership opportunities within the denomination.

The annual PCA-CKC's forum for English-speaking pastors began in 2012 with the aim to "encourage and strengthen PCA EM...

pastors, licentiates, and candidates for ministry through mentorship, discussion, and fellowship," and has explored such topics a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English Ministry,' 'Mentoring Men,' and 'The Heart of a Pastor.'

## Korean Pastors' Conference to Feature Tom Mercer

BY RACHAEL LEE

A conference aiming to recharge pastor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will be taking place from April 25 to 27, featuring Tom Mercer, the senior pastor of High Desert Church, as the main speaker throughout the conference.

"We desire to serve pastors with a time of rest and recharging," said the organizers. "We want to invite

and serve those pastors who are exhausted or burnt out, losing the passion that they first had when they were called as pastors."

The conference, which will be taking place at High Desert Church, is the ninth annual one hosted by Hanam Presbyterian Church in South Korea. For the past nine years, the church has been hosting this 'Happy Pastors Conference' to provide a time of

restoration for pastor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S.

This year in particular, organizers expressed hopes that more Korean American pastors would attend, especially as the main speaker is Tom Mercer, the well-known pastor of High Desert Church, which consists of some 11,000 congregants.

Mercer is also known for the 'Oikos Challenge,' a ministry

which promotes the idea of gathering with a small group of believers on a regular basis to build each other up in the faith.

Only the first 30 pastors to register will be able to attend, and those who register must pay a \$100 deposit that will be returned to them after the conference.

Those who are interested can contact Pastor Boo Hwan Kwak at 213-321-4433.

###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 Flooding in Houston Kills at Least 5, Traps Residents in Homes, Automobiles

BY AMY KIM

On Monday morning, Greg Abbott, the governor of Texas, announced a state of emergency in Houston as rain poured down at rates as great as four inches an hour, inundating nine counties.

The floods have killed at least five people and trapped residents in their own homes and automobiles.

According to Judge Ed Emmet, Harris County's chief administrator, more than 1,000 homes were flooded in Harris County alone.

More than 70 subdivisions were flooded in the metro area. Emergency officials said as many as 60 water rescues were used by rescue workers to save people from their homes.

Houston Mayor Sylvester Turner claimed that eight buildings were destroyed by the downpour and left 43,000 civilians residing in the area deprived of electricity, according to CenterPoint Energy.

The people living in Greenspoint were immediately evacuated and transported to a mall. The city's emergency operation revealed in a statement that it was still carrying out "a large-scale effort" to help people who resided there.

In Magnolia County, just north of Houston, 50 high-water rescues had



(Photo: Todd Dwyer/CC) Floods like the one pictured here from 2009 happen relatively frequently in Houston. The most recent flood killed at least five people.

been operated since Sunday night at 10 p.m. Furthermore, dozens of horses were trapped in the flood and are being rescued.

"When you get off the freeways and off the main thoroughfares, you could be in water 10 to 15 feet deep," Fire Department spokesman Jay Evans told the Associated Press on Monday.

As reported by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all rail and bus services at Metro Houston were shut down as the flood rose up to 16.5 inches off the

ground before noon.

George Bush Intercontinental Airport had recorded 8.85 inches of rain since midnight to 5:30 a.m. CDT. By 10:30 a.m. CDT Monday, more than 400 flights were cancelled as stated in the flight-tracking website FlightAware.

Jeff Linder, a meteorologist with the Harris County Flood Control District, warned residents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a "life-threatening" one, and urged them "to stay where [they] are" until further notice.



(Photo: Agencia de Noticias ANDES/César Muñoz/CC) Volunteers observe the aftermath of the earthquake in Portoviejo.

# Faith-Based Groups Offer Aid to Ecuador Earthquake Victims

Rescue and relief work continues in Ecuador in the aftermath of the most devastating earthquake in decades, which has claimed over 500 lives and injured more than 2,500, according to latest reports.

Many faith-based humanitarian agencies are sending disaster response teams to Ecuador to help find the survivors and provide food and shelter.

World Vision is one of the Christian charities that is helping the earthquake victims at the grassroots level. It has plans to reach up to 10,000 people in the most-affected areas along the country's north-western coast, and to distribute emergency items such as mosquito nets, hygiene supplies, and water treatment systems.

"This is the worst earthquake to strike Ecuador since 1979. It was a truly terrifying event felt across the country. The people of Ecuador spent a long, sleepless night worried about further shocks," said Jose Luis Ochoa,

World Vision's national director in Ecuador.

"Right now, our primary concern is ensuring the need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e met. World Vision is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Child Friendly Spaces where children and young people can access psychosocial care and mitigate any emotional distress," he continued.

World Vision has worked in Ecuador for the last four decades, and promptly responded to the disaster by setting up two temporary shelters and giving out hygiene products, food, water, and other necessities.

Samaritan's Purse, another Christian charity, is covering the devastated regions by sending specialists and medical personnel via three DC-8 cargo planes, which will also carry 40 tons of emergency supplies.

The group will build shelters to house at least 5,000 people, set up a mobile hospital to see up to 100 patients a day,

and will seek to bring clean water to 50,000 residents.

"The earthquake in Ecuador has caused incredible death, injury, destruction, and loss. We're responding as quickly as possible to help with emergency needs such as water, shelter, and medical care. We help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want to show people His love. Please keep them in your prayers," said Samaritan's Purse President Franklin Graham.

MAP International, a global Christian health and relief organization, will be supplying shelter and medical needs, including standardized emergency health kits designed specifically for disaster victims.

Meanwhile, Ecuadorian President Rafael Correa told reporters that it could take \$3 billion to rebuild the country, which is 3 percent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It's going to be a long battle," he said.

# American Evangelist Released from Detainment in Turkey

An American missionary who was briefly detained in Turkey for being a "danger to public order" has been released.

David Byle, 46, was released on April 14, but still faces threat of deportation, despite the fact that he has a residency permit that he received last year.

Authorities had tried to deport him several times before, according to a report by BosNewsLife.

He was detained on April 6 and a "no-reentry order" was filed against him. His wife said that the charges against him of allegedly disturbing public order were false. She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reason he is being held is because of his evangelistic activities."

"Praise God, I was released from the deportation center this afternoon,

and just arrived home," David Byle wrote on Facebook. "Thanks to all who prayed and did advocacy for me, also to my tireless lawyer and most of all to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ho never left my side, and never will."

Byle was the first missionary to have fought and won a lawsuit over his residency. The lawsuit lasted five years.

He was first arrested in Istanbul in April 2007 for "forceful missionary activity," and "aggressive evangelism" but the first charge of missionary activity was dropped the next month as it is not a crime in Turkey. In November that year, the other charge was also dismissed as the law relates only to selling goods or services aggressively, and evangelism does not fall under this criteria.

He also founded an organization called the Bible Correspondence

Course (BCC) in Turkey, which was attacked in 2014. Thousands of New Testaments were burned in the attack.

Then again in February 2009, he was detained along with several other members of BCC, all of whom were forced to provide written statements before being released.

Even in the midst of trying circumstances, Byle remains thankful, according to his wife. She recalled Byle saying, "I am just so thankful to the Lord," before his release.

"He's a very bold person, and I look up to him," a leader (who requested anonymity) at US-based International Christian Response (ICR), an agency that provides aid to persecuted Christians, was quoted as saying by Morning Star News. "I wish there were more people like him."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fc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a.org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 새 봄 맞이 SALE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5 HYUNDAI  
SONATA SE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50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3 In Stock With  
MSRP \$62,450

All in Stock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6 HYUNDAI  
GENESIS Signature Package

Lease It For **\$239** +Tax

All In Stock With  
MSRP \$43,78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2,500 Lease Cash,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